

욥기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입니다.

소개 [00:24-2:06]

안녕하세요, 저는 존 월튼입니다. 저는 휘튼 칼리지에서 구약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Moody Bible Institute에서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에서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즉 히브리어 텍스트든 고대 근동의 텍스트든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것들을 함께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함께 욥기를 볼 것입니다. 욥기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페이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고대 세계 내에서도 독특합니다. 욥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어느 지점에서 그것과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의 다양한 부분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옅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작업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옅기를 다룰 때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방에 해석 문제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옅기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의 시작 부분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옅이 뭐라고 합니까? [2:06-3:32]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책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옅기의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히브리어입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옅기 에서 만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 어려운 구문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사용법을 이해하는 데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작업은 매우 어려운 히브리어 책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의 지점에 이르더라도 문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자는 책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결합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기가 패치워크 이불이고 일부 부분은 원래 없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부분이 추가되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부분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견이 아니다. 나는 욕기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 일관성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문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동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

철학적/신학적 문제 [3:32-4:32]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책이 주장하는 신학적 요점. 우리는 욕기에서 일부 화자가 틀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틀리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욕의 친구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많은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의 신학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것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철학적/신학적 측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책 자체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학,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라는 주제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잘못된 기대[4:32-5:42]

이제 책에 대한 잘못된 기대 중 일부는 책이 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의 끝 부분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런 다음 욥은 이 모든 것을 되찾고 책은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책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이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욥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욥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5:42-7:48]

그래서 책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욥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은

처음부터 욱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첫 두 구절에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어떤 시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이 끝까지 가더라도 여기서 욱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욱은 시련이 있어도 시련을 받지 않습니다.

욕은 자신이 형사 사건의 피고이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피고인처럼 느낍니다. 욱은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되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즉, 그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적절하게 대우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 즉 방향 전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도록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략의 흥미로운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로서 발견하지만 욱은 결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욱이 변호를 위한 스타 증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할을 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욱은 시련이 있지만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욱은 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7:48-9:3 1).

두 번째 요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책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욱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책이 욱에 관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 책은

모두 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욱이 주인공입니다. 욱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책은 욱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책의 끝에서 우리가 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에 접근할 때 우리는 욱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욱이 고통, 인내, 상호 작용 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책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욱은 롤 모델이 아닙니다. 욱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반응은 때때로 좋은 것이었고 때로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서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욱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3) 욱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9:31-13:05].

셋째, 우리는 종종 이 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책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니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정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의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를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욕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다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의 비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지만 욕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지혜를 변호합니다. 이것은 정의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변호합니다.

그것이 그의 정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번 정당화하고, 입증하고, 어떻게든 설명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탁자에 있는 모든 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과 유명한 재판에 대해 듣는다면, 우리 앞에 모든 증거가 없다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아닌지를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전체 프레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라는 외부 범주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순응하신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순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측정해야 할 그의 외부에 어떤 것이 있다는 우발성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외부적인 기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4) 옳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13:05-14:33]

넷째,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경험하고 관찰하든지 간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지만 이 책은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는 그를 비난합니까? 우리는 그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는 그를 무시합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도망치는가? 우리는 무엇을해야합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이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내리막 길을 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요점으로 되돌아갑니다.

5) 욥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14:33-16:08].

다섯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 욥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답.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기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욕기로 갑니다. 이 책은 대답보다 신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신뢰는 우리의 무지와 혼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켜야 합니다. 욕기는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6) 욕기는 왜 또는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16:08-17:24]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책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보다 의를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바로 탁자 위에 놓인 질문이 하나님께 던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욕이 공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정말 욕의 의를 동기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의 의는 정말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까? 결국 욕이 자기가 하는 대로 행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상급을 바라면 그 일이 서지 못하리라 모든 좋은 혜택을 빼앗길 때; 소위 의로움은 바람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욕의 메시지 [17:24-19:12]

그래서 이것은 의에 관한 책입니다. 고통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의롭게 되라고 도전합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삶을 특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의 질문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욥기에서 의로움이 시험되는 방식입니다. 욥의 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쯤이면 내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다음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의로운가? 나는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올바른 이유로 의로운가? 나의 의는 고난의 시험을 견디는가?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복습: 식스 포인트 [19:12-21:10]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욥은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욥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대답보다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보다 무엇이 의로움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요점은 우리가 욕기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개념, 오해, 잘못된 기대를 제쳐두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은 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서로, 하나님, 세상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세운다면; 잘못된 기대치를 설정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욕기가 그 일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페이지를 들여다 봅시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책에 대한 해석 문제와 그릇된 생각입니다. [21:10]

욥기

세션 2: 낱자 및 저자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낱자 및 저자입니다.

책과 저자 없음 [00:21-1:37]

잠시 욥기의 낱자와 저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내가 그 줄을 소개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여러 책을 보고 그 책의 연대와 저자에 대해 묻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책이 없었고 고대 세계에는 작가가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책을 쓰는 작가는 정말 없습니다. 저자 대신 말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서를 씁니다. 아마도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또는 그와 유사한 것, 심지어 밀랍판에 기록된 문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세계에는 책이나 작가가 없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 [1:37-2:45]

고대 세계는 청각이 지배적인 세계입니다. 청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 정보를 받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권위 있는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들에게 말하고 듣는 메시지는 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자는 물론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매우 다른 세상입니다. 저자와 책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대화가 속한 세계에 있는 대신 우리 세계에 대화를 강요했습니다.

권위 있는 음성[2:45-4:13]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책은 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책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지만 책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두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 중 일부는 문서, 개별 계정, 개별 예언 및 개별 시편으로 문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책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책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소통 과정을 시작한 권위자들과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실제로 편집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과거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과정의 시작이 아니라 과정의 끝에서 옵니다. 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책으로 끝납니다.

책으로서의 읍 [4:13-4:55]

읍은 예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읍기에는 문학적 구성인 것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친구의 말과 다른 친구의 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조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읍기는 실제로 책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구약성경에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이거나 유일한 책일 수 있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에서 글쓰기 [4:55-6:44]

물론 지금 우리는 읍의 전통, 읍의 이야기, 이전에 존재했을 수 있는 내러티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들 중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고도로 구성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도덕과 언어와 청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 수준의 글을 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과 직업으로 꽤 글을 읽을 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필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것도 읽거나 쓰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조금 배웠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외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는 동안,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어딘가에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그것을 잃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 언어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고대 세계에서 읽고 쓰는 것이 그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사회와 문화의 운영은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아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방법을 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 [6:44-7:5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법적 요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가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써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만큼 가깝지 않은 경우, 그들은 그것을 하도록 필사자를 구할 것입니다. 기록된 문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전통 중 일부가 나중에보다는 더 일찍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필사 기록 보관소에 있고, 아무도 그것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기록된 경우에도 서기관은 복사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욥 [7:51-8:44]

따라서 매우 다른 문화이고 청각이 지배적인 문화입니다. 욥기의 연설은 매우 글이 많은 연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즉시 공격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화려한 산문이고 때로는 일종의 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교한 수준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연설을 문학적 구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욥의 사건[초기]; 욥기 [후기] [8:44-10:58]

따라서 우리는 저자와 욥기의 날짜에 대해 실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와 책이 고대 세계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용인되지 않는 레이블인 경우 책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글썬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그 책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쓰여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욥이 주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후기가 아닌 초기에 살고 있다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문학적 초점이 이전보다는 이후에 있다는 징후도 책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욥이 아주 이른 시기에 사람으로 기록되더라도 그것이 그 책이 그 초기에 기록되었거나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초기에 만들어진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합시다. 사람이 빠를 수도 있고 구성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기에서 그가 초기 시대에 살았다는 특정 지표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책이 초기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kesitah* 라는 돈의 단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우리는 이전 기간에만 그 돈의 단위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외부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작은 항목이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Chaldean과 Sabeian과 같은 일부 습격 파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 수행된 일부 연구에서 그것은 후기가 아니라 초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비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10:58-12:43).

어떤 이들은 언약이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이 모세 이전의 시나이 이전을 의미하는 이른 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욥이 족장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사제로 봉사하는데, 그것은 이전 문제로 일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책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약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이스라엘 밖의 다른 사회에서는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부족 문화에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낱자를 식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욥은 우스 땅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세부 사항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인물에 초점을 맞춘 책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성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곡일자 [12:43-13:12]

따라서 책의 구성 날짜는 사건 날짜와 다른 날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으로부터 책의 날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전보다는 이후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서로서의 읊: 오래 지속되는 진리 [13:12-14:43]

이상으로 우리는 읊기가 지혜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의 본질은 진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지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것을 구두로 생각하든 글로 생각하든, 책으로 생각하든 문서 모음집으로 생각하든, 문학적 용어로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는 수사학적 용어로,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든 비-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든, 초기 또는 후기에 상관없이 그것은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 교육을 위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지혜 교육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책 자체를 읽는 방법에 차이를 만들지 않고 낱자와 저자의 문제를 제쳐두어도 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옹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 낱자 및 저자입니다. [14:43]

욥기

세션 3: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3과,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입니다.

도입 질문 [00:24-1:06]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틀렸다면, 그리고 욥 자신이 말한 것 중 일부라도 틀렸다면 어떻게 그 책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권위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는 책으로서의 욥, 즉 영감받은 책으로서의 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영감: 그 근원이신 하나님 [1:06-1:58]

우선 우리는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는 그 책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귀에 속삭이는 어떤 종류의 음성이나 마음에 심어진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감은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물론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영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귀에 잘못된 생각을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감—권위입니다.

권위와 우리의 순종적인 반응 [1:58-2:53]

권위는 책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권위는 책이 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영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덕분에 책은 말할 권리가 있으며 권위 있는 위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말할 권리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권위가 아니라 좋은 권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복종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권위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메시지 분별 [2:53-5:19]

우리는 또한 계시로서의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책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책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도 알려줍니다. 책이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은 우리가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에서 그 책의 권위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지혜 문학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와 그 권위는
 연설의 내러티브 자체보다 지혜의 메시지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의
 대부분이 그릇된 생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 방식을 보고 올바른 사고
 방식을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의 모든 것이 어떤 종류의 진실이나 진정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깊은 독자로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 충실한 통역사가 항상 하는 일입니다. 텍스트의 확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때때로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말하는 것의 거짓은 진실의
 그늘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가장 효과적인 거짓이며 진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대적이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위는 역사성에 있지 않다[5:19-6:37]

아마도 더 어려운 점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은 책의 권위가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지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러티브를 통해 진실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 진리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가정하거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위는 그 역사성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실제 과거의 사건인지 여부와 같은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책의 권위다.

예수의 비유와 유사[6:37-7:41]

그리고 이 책은 서술적 사건을 긍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러티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해 사실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유를 작동시키는 비현실적인 요소, 현실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를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욱에게서도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것이 비유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방식으로 실제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 비유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혜 메시지의 권위 [7:41-10:03]

따라서 권위는 역사성에 있지 않고 진리는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실제
 과거의 실제 사건의 정도에 관계없이 책의 지혜 메시지에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는 사건 자체보다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합니다. 지혜는 사건의 전개에서
 반드시 관찰할 수 없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사건에 현명하게 반응합니까?

지혜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건을 지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건 너머를
 바라볼 때 지혜가 옵니다. 얻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의미 에서 지혜는 사건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유의 지혜가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정리한 사건을 초월하는 것처럼 우리는 욱기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합니다. 아이디어에는 진실이 있고,

책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되는 대신에 그것은 지혜가 우리의 즉각적인 시야 너머에 도달하는 일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책의 권위가 부여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10:03-12:03]

다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책에서 우리가 받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지만 그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것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과 강의 계획서 [12:03-14:23]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혔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코스에 대한 나의 계획과 코스에서의 나의 목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들이 코스에 어떻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습 경험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며, 강의 계획서의 목적은 그들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계획과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 교수, 사람, 교사로서의 저에 대해 무언가를 분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조직적인지 아닌지, 디자인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의 계획서에서 나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강의 계획서는 나의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조금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 계획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이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업자가 될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분은 과정에서 그분과 파트너가 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인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 [14:23-15:17]

그래서 우리가 욕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한 모든 설명과 하나님의 추론에 대한 이 친밀한 내부자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이러한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의 일부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긍정하는 것, 즉 지혜의 메시지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의 의미와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복종 [15:17-16:20]

일단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치와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은

내가 맡을 것이고 그 부분은 맡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금의 이 부분은 내고 저 부분은 내지 않겠다고 정부에 응답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일단 권위 있는 메시지를 분별하면 우리는 권위 있는 영감받은 조각으로서 그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조금 알려줍니다 .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에게 확인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3과, 권위와 영감이 있는 책으로서의 욥입니다. [16:20]

옵기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옵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입니다.

소개 [00:24-00:57]

이제 옵기의 장르와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까 아니면 허구입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테이블에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옵션입니다.

장르의 중요성 [00:57-4:16]

그래서 우리는 책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장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르가 까다로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르는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미스터리를 읽고 있다면 전기를 읽을 때와 다르게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설을 읽는다면 그것은 연재 만화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르를 이해하면 사물을 다르게 읽습니다.

그러나 장르가 무엇인지 또는 장르의 식별은 유사한 문학 공동체에서 문학 작품을 위치시킵니다. 그것은 그것과 같은 것을 식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읽기 전략을 제공합니다. 즉, 장르 식별이 의미가 있으려면 세트에 다른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옅과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혜문학으로 충분히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범주이지만 지혜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담, 속담은 지혜문학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대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혜의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넓은 범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주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전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옅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넓은 범위의 지혜 외에는 문학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대화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있고 옅은 그 안에 약간의 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 찬송가인 문학 작품이 있고 옅에게는 지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론인 문헌이 있고 옅에게는 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장르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무고한 고통을 다루는 다른 책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 안에 수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세계에 유사한 시나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욥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루다.

사고 실험으로서의 욥 [4:16-5:57]

그것은 지혜 문학이며 읽기 전략에 대한 많은 질문을 통해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한 형태이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고 실험의 형태입니다. 사고 실험에서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문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도록 신중하게 구성된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유는 실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따라서 비유는 사고 실험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욥이 비유라고 믿지 않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실험에서는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요점은 사고 실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장치의 현실적인 특성에서 철학적 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추진 [5:57-7:28]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극단적입니다. 욕기에는 모든 것이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한 극단적으로 늘어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극단입니다. 만약 욕이 덜 의롭다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에 꽤 좋은 편입니다. "오, 그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덜 극적이거나 점차적으로 발생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철저하고 포괄적이지 않은 경우 "글쎄, 그는 약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의롭지 않은 행동과 약간의 고통,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니, 아니, 욕기, 모든 것이 극단으로 당겨집니다. 탁자 위에 쉬운 대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쉬운 대답을 모두 제거하고 철학적 아이디어, 지혜 포인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욕 [7:28-11:21]

사건이 진짜인지에 대한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의 초현실적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생각해보자.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적어도 책의 일부는 실제 사건, 문학적 구성이 아니라 문학적 구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의해 온 책의 일부가 문학적 구성물입니다. 친구들의 연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상한 언어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사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음,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그랬고, 이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등등,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 거기 앉아서 모든 것을 기록할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연설은 문학적 구성물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십니까? 책의 일부를 문학적 구성으로 식별하자마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의 얼마나 많은 것이 문학적 구성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사건의 기록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선을 긋습니까? 그리고 책의 일부가 문학적 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문학적 구성은 사고 실험에서 관촬기 때문에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욥이 정말 절박한 사건이 그에게 닥친 정말 좋은 사람으로 고대 세계에서 유명해진 실제 과거의 실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혜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이 유명한 사람을 이용한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러티브의 기본 형식을 취합니다. 아니, 욥의 삶, 한 남자의 의로운 고난을 의미하는 기본 내용과 서사가 실제 과거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닻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책의 대부분은 사고 실험, 문학적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단의 사용과 테이블에 가져온 철학적 문제는 모두 요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 실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11:21-12:53]

지금, 아마 당신은 그 아이디어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다음 단계는 삼키기 더 어려운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책이 대부분 사고 실험, 문학적 구성물이라면 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일까요? 이 사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넣은 영감받은 저자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는 장면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도 문학적 구성인가?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적어도 그러한 용어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진실은 그

지혜의 가르침, 즉 확인되고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의 진실은 역사성의 차원에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욥을 사고 실험으로 보는 것의 이점[12:53-14:40]

여기에 문학적 구성 사고 실험의 일부로 천국의 장면에 대해 생각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천국에서 그런 장면이 열리면 어떨까요? 이것이 대화가 이루어진 모양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욥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자들이 책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사항을 어떻게 피하는지 보십니까? 이것은 마귀와 내기를 하는 신의 그림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이블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복잡한 문제이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책은 천국 토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14:40-15:47].

이 책의 가르침은 사건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펼쳐지는 문학적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그 시나리오를 배치하는 데 많은 창의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시도 해 봐. 쉬운 대답이 테이블에서 벗어나도록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에 대한 그분의 책임 또는 그분이 고통에 대해 어떻게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토론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적 전략: 구조와 지혜 찬송가 [15:47-20:20]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고 실험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이 어떻게 가르침을 성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사적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책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구조는 알아보기 매우 쉽습니다. 샌드위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장면과 욥의 경험이 있는 산문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산문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북엔드입니다.

책의 바로 중간에 지혜에 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찬송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 옹이 말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옹은 2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장에서 새로운 화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옹이 똑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7로 끝나는 부분이 책의 대화 부분입니다. 29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책의 담론 부분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 찬가는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섹션에서 담화 섹션으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대화 부분을 보든 담화 부분을 보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옹이 28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옹의 입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나도 동의하는 대안은 28장의 지혜에 대한 찬가에서 내레이터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를 주신 분, 죄송합니다. 프롤로그와 장면을 설정하고 결론을 이끌어 낸 에필로그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옹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마친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3장에서 시작하여 27장까지 이어지는 대화 부분입니다. 옹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서 연설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소발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빌닷은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대화는 고대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의 끝에 도달하고 매우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지혜에 대한 찬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그게 다야?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니? 아직 표면을 긁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지혜에 대한 찬가에서 그 책은 정의에 대한 토론처럼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찬가는 책의 중간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서 담화로 우리를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대화와 담화 [20:20-23:30]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지혜에 대한 찬가를 가지고 있고, 주요 부분은 대화와 담론입니다. 대화가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옵과 그의 친구들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각 연설을 하고 욥이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화 부분입니다. 그것은 3장에서 욥의 탄식으로 시작하여 4장에서 엘리바스의 연설로 시작하여 27장을 거쳐 지혜에 대한 찬송과 담화로 이어집니다.

담화는 서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설을 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29-31장에서 그의 연설을 하고, 엘리후는 32-37장에서 그의 연설을 하고, 그 다음 야훼가 연설을 하고 그것이 담론 부분을 채운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원시 내용을 많이 포함하는 대화와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는 모든 것을 끝맺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구조가 수사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조는 사례가 구축되는 방식을 통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 어떤 부분도 책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고 여전히 일관성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문학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르지만 모두 함께 작동하며 그 중 하나를 빠뜨릴 수 없으며 여전히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통해 작업하면서 수사적 전략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부분이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책의 각 부분이 기여하는 바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패치워크 퀘트나 여러 손으로 함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책으로 모이는 조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문학적 구조라면, 그것이 구성되고 구성되고 지혜 메시지가 있는 사고 실험이고 모든 조각이 그 일부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실제로 책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음유시인들은 재능이 있었고, 이것을 구술로 도 합칠 수 있었다 .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지만 고대 세계의 음유시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Homeric 문학은 그 자체로 꽤 길며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학적 전략과 저자의 의도 [23:30-26:17]

우리는 책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하고 정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수사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적 전략은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수사학적 전략은 저자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든 서면이든 커뮤니케이터를 위한 일종의 지름길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사학적 전략이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간 커뮤니케이터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받으려면 인간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자의 의도라고 부르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저자의 의도 중 일부는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다를 수 있으며 괜찮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해석자들은 하나님이 인간 전달자, 인간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 책의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커뮤니케이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찾을 곳입니다. 우리는 프리랜서로 일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읽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 이 책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책 자체에서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문제를 가진 장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수사학적 전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감받은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 전달하신 내용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율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입니다. [26:17]

욥기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입니다.

검토 [00:22-2:44]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욥과 욥기가 그들이 존재하는 고대 근동 배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문화나 다른 어떤 문화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잔틴 문화를 예상하지 않고 비잔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세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동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나 미국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는 특정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과 목적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를 가정하거나 우리의 문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고대 세계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고대 세계의 어떤 문학 작품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포성은 대화가 그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가 그 시대와 문화의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문화의 맥락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책이 이스라엘 사람의 책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인을 위해 이스라엘인에 의해 틀이 잡힌 것입니다.

고대 근동 (ANE) 문학의 경건한 고통 [2:44-6:33]

경건한 환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대 세계에서 알려진 범주에 맞습니다. 경건한 고통받는 사람을 논의하는 문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주어진 답은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발견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패턴을 따르는 고대 세계의 작품 중 일부는 *A Man and His God* 이라는 초기 수메르 작품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상태는 그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책의 끝에서 그에게 죄가 밝혀지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 책의 배후에 있는 철학은

죄 없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책의 신학인 찬양의 찬송이 됩니다.

Akkadian Mesopotamian 작품은 A Dialogue Between a Man and His God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가능한 범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경건한 괴로워하는 자 모티프는 표면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본질적인 면에서 경건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의 신 사이의 이 대화에서 이 인간은 병을 앓고 결국 건강을 회복합니다. 제공되는 철학이 없습니다. 신의 은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Ludlul bel Nemeqi, I will Praise the God of Wisdom입니다. 그것은 Akkadian 작품이므로 바빌로니아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양심적이고 경건하며 가능한 공격에 대해 무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회적 부랑자임을 알게 됩니다. 신들과의 소통이 불분명하다. 그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보호 정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악마 억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알린다. 그 결과 그는 달래는 정결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얻었고, 그 자신의 범죄는 태어납니다. 그의 악마는 추방되고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이면에 있는 철학은 신들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빌로니아 신정론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은 경건함을 주장하지만 그의 가족은 떠났고 그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목적이 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들이 사람을 악한 성향을 갖고 고통받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순히 그런 식입니다.

ANE 출처의 아이디어[6:33-11:02]

이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인기 있는 작품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신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찾은 답은 신성한 불가해성입니다. 당신은 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 당신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혹은 신들도 인간을 비뚤어지게 만든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아무도 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들이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책임을 묻는 경향이 적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신들은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이나 가나안인이나 헷인에 대해 말할 때 신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이 그들을 불쾌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신들이 대체로 일관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만의 의제가 있고 변덕스럽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신의 무시나 분노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심한 결과라고 느끼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을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신들이 화를 내면 그들의 보호를 제거하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악마의 힘이나 주변에 있는 세력의 위험에 처해 취약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Ludlul bel Nemeqi로 식별한 작품에서 환자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것은

신에게 모욕 이 됩니다 . 하늘에 있는 신이 누구냐 지하세계 신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 어디에서 신의 길을 배웠느냐?”

그의 좌절감이 들리나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지 말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상사가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추측에 따라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 매우 불편합니다.

나는 이 통찰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알려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하신 새로운 감사와 감사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욥과 같은 책의 문학적 배후에 있는 것, 그 시나리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그것들을 초월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1) 다신교가 없다[11:02-12:12].

이제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욥이 다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다신교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정말 이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은 신성한 회의 때문에 첫 장에서 약간의 공동체를 볼 수 있지만 다신교에 대한 성향은 없습니다. 사실 욥은 다신론에 반대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욥기 31장 26절의 맹세에서 그는 해나 달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태양과 달을 숭배했고 기꺼이 그렇게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2) 어떤 신이 고난을 가져오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12:12-12:46).

두 번째 요점은 욥이 어떤 신이 그를 괴롭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을 영망으로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할 다른 사람은 그림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한 신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3) 합당한 또는 과분한 처벌 [12:46-14:33]

그는 자신의 처벌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서 나는 다양한 조각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무지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범죄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무지했고 어떻게든 신들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범죄가 실제로 그에게 이 형벌을 받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한 사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반대편에 있는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들은 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묘사된 의는 고대 세계의 식탁 위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의례적인 것이지 정의할 수 있는 추상적인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의는 그 요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이스라엘적인 느낌을 줍니다.

4) 욥이 아닌 대공생[14:33-18:24]

또한 이와 관련된 욕기에는 내가 대공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제안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위대한 공생은 신과 사람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신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지쳤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신은 배고프고, 신은 목마르고, 신은 옷이 필요하고, 신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고, 자신의 밭에 물을 대고, 자신의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곤하고 지친 일이었습니다. 신들은 그것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노예 노동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그들은 음식을 재배하고 우리를 먹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고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멋진 집을 지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애지중지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애지중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생의 한 측면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신이 인간을 위해 해야 했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비를 내려 사람들이 신을 먹고 자신을

먹일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신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와서 그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적되는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 신들에게 의존합니다.

신들이 정의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정의가 그들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 사회 문제가 있고 사회가 질서 있고 정의롭지 않다면 모든 종류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 임무는 신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회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들은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사회에 정의와 질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약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하는 위대한 공생, 상호 의존성, 상호 필요입니다.

5) **웁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가 ?- 이스라엘 사람 [18:24-19:51]**

이제 웁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 웁은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위대한 공생의 바로 그 토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도 대가 없이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모든 생각은 신이 은혜를 갚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제공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신들이 번영과 보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어느 누구도 대가 없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의 전제 자체가 위대한 공생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이스라엘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공생에는 사심 없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6) 친구들과의 욥의 의견 불일치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19:51-21:56]

더욱이 욥이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욥의 이스라엘 사상이 반영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을 달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전화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든 조언은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물건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욥, 정말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책의 문제는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욥은 정말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욥의 의가 무관심한 것입니까? 즉, 그는 정말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의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물건을 복원할 수 있는 이점에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욥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욥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독자는 욥의 관점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입니다.

7) 책의 초점은 이스라엘인입니다: 의식적 회유 없음 [21:56-23:24]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의 초점은 이스라엘인입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책의 초점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의례적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 모든 문학 작품의 방식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의례적 범죄가 있었음에 틀림없었고 따라서 어떤 의례적 회유, 어떤 의례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그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화책이 효과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든 신이 비합리적으로 분노하고 달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욱은 설명을 위해 그를 법정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회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들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식적인 의미의 회유는 아닙니다. 책은 그런 전술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상을 대표하는 친구들조차 의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8) **하나님의 공의와 욱의 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23:24-24:51]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과 욱의 의로움 모두에 이 책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이 책을 고대 근동의 사고 체계와 매우 다르게 만듭니다. 고대 근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신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정의에 관심이 있다고 믿지만, 어떻게든 신들이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제로 그림에 있지 않습니다. 신들은 그들이하는 일을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정의할 수 없는 욱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림 속에 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요점은 욱이 처음부터 바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고대 근동에서 그가 명확하다고 선언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책의 극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든 고대 근동 설명을 테이블에서 끌어내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옳을 무죄로 만든다면 옳의 고통에 대한 모든 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이 주는 모든 것.

9)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관점[24:51-25:1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스라엘인의 초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신에 대한 초월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다시 한두 장을 읽는 방법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에 대한 초월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책의 대답은 인간의 본성이나 신의 본성에 달려 있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고대 근동에서 발견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ANE 문헌은 친구 입장에서 호일로 사용됨[25:14-26:32]

그렇다면 옳기는 고대 근동 문학의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문학을 호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고 청중이 얼마나 파산했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다른 대답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은 옳기의 대화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폭넓은 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대화에 들어가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입장을 취하고 고대 세계에서 단순히 사용할 수 없었던 대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들. 욥의 친구들은 고대 근동의 사상을 대표하지만 욥은 그것에 저항하고 책은 그것에 저항합니다.

요약: 욥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다[26:32-28:32]

자, 이스라엘의 뚜렷한 특징을 요약해 봅시다. 우선 큰 공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이 욥기 22장 3절과 같은 곳에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고대 근동의 요소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욥은 고대 세계가 제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 범죄를 고려하거나 제안하거나 추구하는 의식적 구제책이 없으며 유화책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지혜는 주요 주제이며 실제로 이 책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발견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단순히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신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신성한 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과 그분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욥기는 고대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반대되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고대 세계의 신들 중 하나에 대해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다른 하나님, 야훼의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욥과 고대 근동입니다. [28:32]

욥기

모임 6: 욥기의 목적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책의 목적입니다.

소개 [00:22-1:07]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이 권위와 영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장르, 날짜, 저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수사적 전략에 의해 달성됩니다. 목적은 구조를 통해 달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욥 등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특이성을 부여합니다.

목적[1:07-2:16]

이 책은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합당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책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책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고통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특히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책의 진정한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도전자의 비난: 의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음 [2:16-5:49]

이제 이 책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늘에 대적이 있습니다. 적대자, 도전자, 때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의이지만 지금은 그를 "도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도전자가 있고 도전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욥에게 주의를 이끄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마음에 두었느냐 그와 같은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하지만, 욥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공정하고 의로우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자의 질문이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은 욥의 동기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내재되어 있고, 그 질문의 진정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책이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자가 정말로 묻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그 의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각종 이익과 형통과 성공과 건강과 각종 이익을 얻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용병으로 길러낸 것이 아니냐? 당신은 정말 그들에게 의로움에 대한 숨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결국 의를 생각하기보다 은혜를 사모하도록 훈련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한 다른 종류의 생각은 실제로 참된 의를 전복시킵니다. 그 사람이 혜택이 마음에 든다고 결정할수록 참된 의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시여. 의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참된 의에 최선의 이익이 됩니까?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동기를 타락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전자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든 이것이 제기해야 할 논리적 요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22장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으로 돌아가서 같은 종류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에 다시 올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책에 대한 비난의 한 갈래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측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입니까?

욥의 비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5:49-6:47]

이제 욥에게 재난이 닥치고 재난이 그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입니까? 내 말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고 당신의 팀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은 그다지 좋은 정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전자는 "의인이 번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남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합니까? 적절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Book's Focus: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7-7:58]

이제 우리는 책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전자는 옳을 그릇된 동기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전개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것 같지만 당신은 그를 너무 잘 살게 하여 그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옳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혜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전략이며 일단 생각하면 정말 분명합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옳의 의의 성질이 무엇이며 의의 패기가 무엇입니까?

결론: 나는 신, 너는 아니야, 파워 카드 [아니오] [7:58-8:40]

이제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하면 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카드를 탁자 위에 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신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는 문구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일에 신경쓰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비교에서 가치가 없거나, 그냥 입을 다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든 신이 파워 카드를 뽑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 알다시피, 나는 신이고 당신은 아닙니다.

결론: 나는 신이다 날 믿어 카드를 믿어 [예]]8:40-9:24]

그리고 나는 그것이 책이 도착하는 곳을 실제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느낌이 있고,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파워 카드가 아닙니다. 공감카드입니다. 신용 카드입니다. " 나는 지극히 현명하고 강력한 신이다. 나를 믿어라."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9:24-11:00]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정책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비난할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은 비난하기 가장 쉬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신뢰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통을 가져온 사람이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욥에게 답을 주실 때, 마지막 장에서 욥에게 상황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큰 목적의 틀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법,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합당하게 생각하는 법.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책의 목적입니다. [11:00]

욥기

세션 7: 욥기의 신학적 기초,

보복 원칙 삼각형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욥기의 신학적 기초, 보응 원리 삼각형입니다.

보복 원칙 소개 [00:26-2:46]

책 자체로 넘어가기 전에 책의 목적을 확장하여 책의 신학적 토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특별히 응보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고대 세계의 위대한 공생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응원칙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상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내가 의인, 준수하는 자, 신실한 자를 말할 때 그 말을 대신하면 그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건강, 성공, 농작물이 자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행복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신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준의 재난이든 다른 수준의 재난이든 다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의인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복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든 그들이 신이나 신들에게 은총을 받거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상황을 가져온 무언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상황에 반영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인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임을 반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이걸 벌기 위해 무엇을 했지?” 상황이 나빠질 때. 따라서 욕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보복 원칙입니다.

욕의 보복 원칙 [2:46-4:06]

사실, 욕기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응보 원칙을 매우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욕기는 응보 원칙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을 봅니다. 의로운 사람은 형통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변영하고 있다면, 그들은 옳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상황이 극적으로, 비극적으로 변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런 종류의 재난을 가져오고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정말, 정말 나쁜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극단으로 되돌아갑니다. 욥은 인성의 최고 높이에 있고 가장 낮은 고통의 깊이까지 간다. 그 극단은 우리가 명석한 마음으로 보복 원칙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도전자와 보복 원칙 [4:06-5:53]

그래서 욥기는 이 보복의 원칙을 살펴본다. 결국 도전자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보복 원칙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보복 원칙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고,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법 제도를 위해 일하고 계신 논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선을 행합니다. 당신은 좋아집니다. 당신은 나쁜 짓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보복 원칙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일종의 정량화하거나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은 이익을 기대하는 은밀한 동기를 설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의 발전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 이에 챌린저는 과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책의 한 부분인지에 대해 보복의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욥의 주장은 보복 원칙이 시행되지 않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 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에서 이야기한 비난의 두 갈래에서 보복 원칙이 대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의 보복 삼각형 [5:53-7:12]

이제 우리는 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레임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아래쪽 모서리에는 보복 원칙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다른 아래쪽 모서리에는 욥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인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제 욥이 변영하는 한 그 삼각형은 매우 편리하고 매우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욥은 의롭고 보응의 원칙이 참되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삼각형을 바라보고 무언가 가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욥, 보응의 원칙 세 가지를 다 붙들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포기할지 알게 됩니다. 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청구의 삼각관계[7:12-8:24]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욥의 친구들이여, 나는 그 모퉁이에 그들의 요새를 짓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삼각형의 보복 원칙 모서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요새를 세웁니다. 그들은 연설에서 계속해서 보복 원칙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논증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의 옹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 유리한 지점에서 그들은 삼각형의 다른 두 모서리를 내다봅니다. 어느 쪽이 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욥이 정말로 의롭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까?

글쎄,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보복 원칙이 참되고 하나님이 감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는 당연히 욥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의롭지 않고, 외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의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욥입니다. 그래서 보복 원칙 코너 에 요새를 쌓고 , 욥의 코너에서 포기한다. 그것은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욥과 보복 삼각형 청구 [8:24-9:57]

물론 욥과 그의 관점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가 요새를 짓는 곳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퉁이에 요새를 짓습니다. 그의 의는 그의 마음에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약간의 어색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조심해야 하고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보복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의로롭게 행하신다는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가난한 욥에게는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은 계속해서 그는 보복 원칙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것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욥의 연설이 책을 통해 계속됨에 따라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대해 점점 더 의심하고 회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구석에 성을 쌓고 보응의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보복의 삼각 관계 [9:57-14:59]

이제 대화 섹션을 통해 나오는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외에도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가 있습니다. 책의 끝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담화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는 여전히 삼각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의 삼각형 꼭대기에 성을 쌓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엘리후는 무엇을 포기할까요?

그는 보복 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옅의 다른 친구들처럼 옅의 의를 의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삼각형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설정 하고 친구들이 그와 가깝지도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엘리후는 다른 두 귀퉁이 중 어느 것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영리하다. 그가 하는 것은 보복원칙을 보고 보복원칙이 옳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복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은 과거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엘리후가 다가와서 말하길 아마도 그것보다 더 복잡할 것입니다. 보복 원칙을 보는 방식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해결하고, 대응합니다.

보복 원칙을 더 예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따라서 보복 원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는 일은 친구들과 달리 욱의 과거에서 불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그는 욱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선을 보라. 당신의 독선을 보라.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의지를 보라.” 그는 “문제는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 후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욱이 문제는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용어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정의함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안을 그에게 주었고, 욱 자신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그의 독선과 하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위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것을 재정의했지만 보복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욱의 의로움에 대해 다른 종류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엘리후는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 더 옳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옳을 더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게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문제는 누구보다 진리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나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보복 원칙을 사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훑어가면서 엘리후의 부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더 면밀히 평가할 것입니다.

청구 해결 시도의 보복 삼각형 [14:59-15:18]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주장의 삼각형,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책의 시나리오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긴장 중 일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복 원칙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보복 원칙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긴장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들이 고대 근동에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동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복 원칙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단단히 연결된 삼각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본성을 타협했을 뿐입니다.

다른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협하거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교육적, 인격 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고통의 목적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복 원칙의 일부 긴장이 해결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장하는 보복 삼각형: 타이밍 [15:18-18:02]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긴장을 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때때로 타이밍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긴장을 해결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시다시피 애가 시편에서 대부분의 경우 보복 원칙의 맥락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적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보복 원칙에 대한 질문은 애가 시편의 많은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시편은 시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결국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에게 대항하여 행동하시고 시편 기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때로 기독교 신학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영원이 있다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천국에서의 영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척도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작은 일들은 사소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연장된 시간 개념으로 보복 원칙을 한정합니다.

해결책으로서의 정의와 세계 [18:02-19:07]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복 원칙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게 행동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계에는 무질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정의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의 유일한 기초가 아니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것은 그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세상을 자신의 정의에 따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순응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복합체 [19:07-20:47]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는 단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의 전체 성품, 속성의 전체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보복 원칙에 자격을 부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세상이 다르며 세상에 공의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공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불완전한 세계, 타락한 세계, 심지어 아직 완전히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세계라는 매개 변수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셨고, 무질서와 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원칙에 대해 우리가 찾은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시편, 특히 지혜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공의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신학적 설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속담입니다.

신학적 해결책이 아닌 보복 원칙 [20:47-23:08]

보복 원칙은 본질적으로 속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사물이 자주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항상 작동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보복 원칙은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신정론입니다. 보복 원칙은 신정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응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항상 어떻게 일하시든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증입니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처벌하시지만 그런 일을 끝까지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성격은 세상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보복 원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정론에 반대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설명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옅기는 신학이 신정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둘을 분리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방어가 필요하지 않으신다 [23:08-24:18]

야훼의 정의는 우리 경험에 대한 매 순간의 분석을 철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정론, 신정론에 대한 우리의 시도는 신에 대한 약간의 모욕입니다. 그는 우리의 방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를 유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신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 별자리는 복잡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공의를 선택하실지, 언제 자비를 선택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연민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의는 그 별자리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에서 목적으로, 신정론에서 신학으로 이동하는 예수 [24:18-27:59]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보복 원칙 질문에 직면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인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큰 기회를 봅니다. 여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바로 보응 원칙 질문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냐, 그의 부모냐.” 보십시오, 이것은 큰 수수께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부모라면, 그 남자는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이 신정론적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신정론적 질문이고 일종의 확장된 신학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정론에서 신학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이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 안돼, 그가 또 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보지 말고 원인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원인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에게 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래로 관심을 돌리고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과거와 원인에서 돌이켜 목적을 보도록 하십니다. 고통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이 결국 얻은 것과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원인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누가복음 13장 떨어지는 탑[목적 이동을 야기함] [27:59-29:52]

예수님은 다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 그곳에 있는 동안 무너진 이 탑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의 무작위로 보이는 재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그 원인에서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죄와 형벌이 일대일로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경고로 보도록 권면한다. 그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고 청중의 관심을 그러한 사건의 목적으로 안내합니다. 경고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일대일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면한 보응의 원칙 문제를 다룰 때 일관되게 이유를 제시하거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기 시작할 때 욕기가 하려는 일의 큰 부분입니다.

이제 섹션별로 욕기 자체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회기 욕기의 신학적 기초, 보응 원리 삼각형입니다. [29:52]

욥기

세션 8: 지구의 풍경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8, Scene on Earth입니다.

서론: 욥기 1:1-5, 우스 땅[00:22-1:26]

이제 실제 욥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많은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제 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책의 처음 다섯 구절인 지상의 장면만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 땅에서 온 사람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가 외국인이고 모호하고 신비한 곳에서 왔으며 고대 이스라엘 청중에게 알려진 세계의 경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에돔과 관련된 시리아 사막 지역인 이 신비한 사막 지역 출신입니다. 지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 지역 출신이다. 예를 들어 테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우스와 에서를 연결하고 다시 그 지역에 사물을 배치합니다. 70인역에서 발견되는 욥기에 대한 최초의 해석은 우스를 이두매와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점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극단에서의 욥의 성격과 행동[1:26-3:58]

우리는 욥 자신의 묘사에서 모든 것이 극단으로 그려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흠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tam* 이고 그는 올곧은 *yashar* 입니다. 이들은 각각 그의 성격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면에서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된 비난이나 죄책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욥을 묘사하는 반대 단어를 찾으면 유죄라고 선언되거나 악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정죄 아래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를 찾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그 반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죄없는 완전함의 말이 아닙니다. 욥의 행동은 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로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에 대해 알려진 것에 근거하여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비멜렉은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용어는 욱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극단의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극단에 있는 욱의 소유[3:58-4:46]

이제 그의 소유물과 그의 지위도 이상권에 있다. 꼭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얼마나 많은 소, 몇 마리의 낙타, 몇 마리의 양과 염소, 모든 것이 이상적인 용어로 묘사되는지에 대한 고정 관념입니다. 그는 가능한 최고의 기준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극단을 묘사했습니다. 물론 극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욕의 경건: 의식 관행[4:46-6:24]

자,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4절과 5절에는 그의 아들과 딸들이 분명히 생일 잔치나 일종의 연회를 위해 모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행한 이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다루는 설정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생일이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잔치 기간이 지나면 욥이 그는 이른 아침에 그들 각자를 위해 번제를 드리며 생각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나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욥의 평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행을 찾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연회장에서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연회장에서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목숨을 잃습니다. 욥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아이들 [6:24-7:07]

이제 이 “그들의 마음속” 개념은 개인에게 적용할 때 사적인 생각을 의미하지만 개인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 모임, 연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면의 일부인 경우 기업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기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8:17, 18:21,

시편 78:18과 같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단체 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저주/축복 [7:07-10:59]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말할 때 “저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을 완곡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와 신을 나란히 두는 것은 나쁜 취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욥의 초기 장들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의 많은 상호 작용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도전자는 욥이 그의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저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는 대조적으로 욥이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대신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비록 도전자가 제안한 것과 같은 동사이지만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동사는 2장 9절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축복/저주하고 죽는 것입니다. 욥은 그 두 번째 라운드 이후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3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문학적 모티프를 확립할 때 이러한 특정

용어 사용 외에도 이러한 단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기본 내러티브 프레임워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은 1장 10절에서 자녀와 재산으로 옫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축복은 찬양으로 성취됩니다. 도전자 앞에서 하나님이 옫을 축복하는 그 구전 축복의 성격은 옫의 물질적 번영을 잃게 하는 도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책의 끝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주-축복의 대립은 이 책에서 모티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정확히 무엇이 수반됩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능의 권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 그래서, 16 진수 또는 그런 종류의 것. 주문과 같은 것으로 신에 대항하는 힘의 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고 경멸하고 중상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행동이나 동기가 부패했거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거나, 하나님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난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행하지만, 그는 경멸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여전히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경멸적인 포기, 부인, 합당한 영예를 등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의례적 행위, 소심한 하나님 [10:59-14:52]

이 전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의식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일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장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욥은 연회의 맥락에서 그의 아들과 딸들이 부주의한 말을 했을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주의하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 화를 내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순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실제 가능성으로 간주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앗시리아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자는 분명히 그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다고 매우 걱정합니다. 이 기도는 해결책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부주의로 내 신, 내 여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여신에게 성스러운 곳을 밟았다면. 나의 신이나 나의 여신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참된 신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여신을 모독하는 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이나 여신 또는 그가 모르는 신이나 그가 모르는 여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실수로 행했을 수 있는 일의 전체 체크리스트를 검토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신들이 꽤 사소할 수 있다는 생각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알 방법이 없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성품과 행실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욥의 경건 의식에 관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챌린저가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표현이다. 욥이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이 유익에 관한 것이지 의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노하시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긍정적인 특성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것은 실제로 그가 이미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의 갑옷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그리고 사실은 그의 연설에서 그것이 돌아올 것이고 그는 그러한 것들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욥기 1:1-5 요약 [14:52-15:19]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책망할 것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갑옷에 틈이 있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의 장면이 열리면 그것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8, Scene on Earth입니다. [15:19]

욥기

세션 9: 천국의 풍경, 파트 1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Scene in Heaven입니다. 1 부.

천상의 회의 [00:23-1:36]

이제 욥기의 장면은 하늘 궁정으로 전환됩니다. 시청자의 날입니다. 야훼께서 청중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의 신성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의회 의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평의원들이 보고를 할 때 그것은 신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의회와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열왕기상 22장, 여기 욥기, 이사야서 6장에서 그 그림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시편 82편 및 기타 여러 곳.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회의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고대 문화에서와 같이 다른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하사탄의 성격 [1:36-5:23]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나쁜 사람, 마귀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의합시다.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를 사탄으로 말하는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번역이 사탄을 대문자 S로 번역하고 즉시 악마와 관련된 개인 이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개인의 이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에 명확한 기사를 넣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입니다. 그래서 하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당신은 몰랐고 히브리어를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인 하사탄입니다. 이제 그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공평하게 그것을 자본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은, 우리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역할을 설명합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로도 기능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사일 때, 그것은 어떤 반대가 있고, 적대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하고,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솔로몬에게 도전하는 다른 왕들에 의해 인간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사람,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의 움직임에 도전하는 주의 천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22, 사탄으로서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이 역할에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에서 인간을 찾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언급한 주님의 천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발견하는데, 그는 특정 구절에서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욥에게는 이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 이 도전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이 도전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회의에 있습니다. 그는 악마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성서에서 사탄의 사용은 마귀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다른 경우와 같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중 하나는 스가랴 3장에 나오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며 도전합니다. 적절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으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지시를 내리십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을 부추겨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사탄을 가리킨다. 따라서 프로필을 작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러한 몇 가지 발생이 있습니다.

도전자 [5:23-6:15]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하늘의 조연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습니다 .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들 사이에 있든 하늘의 무리들 사이에 있든, 상황에 관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생각은 도전하는 사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우리가 찾는 것의 프로필에 맞습니다. 단어.

그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충분히 벗어날 때까지 마귀의 개인적인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과 그 이후 사이의 두 번째 성전 시대의 유사 서적 문학에서 그것은 하나가 아닌 많은 사탄을 언급합니다. 악마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도전자[6:15-8:36]

여기 읍에서 도전자 하사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보고하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도전자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적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즉, 의인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의를

전복시키고 속셈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 과장된 비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그의 표적이 아닙니다. 욥을 양육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도전의 대상은 하나님의 정책입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적인 시험 사례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챌린저가 악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욥을 망칠 때 악마 같은 웃음은 없습니다. 사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손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욥을 파멸시킨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아무도 욥의 파멸에 연루된 다른 요원이 있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도전자만큼 욥을 치셨습니다.

도전자는 악으로 묘사되지 않음 [8:36-10:11]

때때로 우리가 도전자를 마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큰 기쁨을 얻고 욥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흥미 롭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매우 슬프게도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텍스트는 각각 응답하는 방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캐릭터 모두 특별한 감정이 없거나 특별히 공감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도전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당신은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는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혹하지도, 타락하지도,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악마 프로필이 아닙니다. 이것은 텍스트 자체에서 파생해야 하는 독립적인 프로필입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문학적 구조로서의 도전자[10:11-11:27]

도전자는 이스라엘 청중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저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문학적 구성물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따라서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저 문학적 등장인물일 뿐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신약성경이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역할을 합니다. 욥기는 이후의 그레코-로마 청중이 아닌 이스라엘인으로서 표적 청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프로필, 즉 신약에 기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The Challenger는 이 책에서 신학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욥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하면서 상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는 욥의 고통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 책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귀에게서 비난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책의 작은 캐릭터로서의 도전자 [11:27-12:30]

그의 역할은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고통이나 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극의 전개에 조그마한 역할을 하는 조연이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도전을 가져오는 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하늘의 관리입니다. 그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것을 잘합니다. 그것은 책의 장면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옅의 의가 시험을 견딜 것인지 알아보니다. 고통은 옅의 의로움의 패기를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통은 책이 택할 길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옅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Scene in Heaven, 파트 1입니다. [12:30]

욥기

모임 10: 하나님과 사탄의 아들들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하나님과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도전자의 보고서 [00:23-1:03]

그래서 명장면이 천궁에서 펼쳐진다. 하나님은 도전자를 부르셔서 보고를 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상황을 열어주는 대화일 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신의 표현이 아니다. 그는 도전자에게 가서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챌린저는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러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의로움에 대한 질문 [1:03-2:27]

챌린저호는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건을 가져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욥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와 그의 가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어 그의 양 떼와 소 떼가 온 땅에 퍼지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예, 당신은 그를 위해 꽤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심 없는 의, 즉 사심 없는 의의 경우입니다.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 도전은 우리가 이야기한 용어인 보복 원칙과 위대한 공생의 핵심을 바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수정책이 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 [barak] 할까요? [2:27-3:52]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책을 수호하는 변호를 위한 별 증인으로서 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도전자는 욥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모든 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축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barak"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 문맥에서 1장 5절, 11절, 2장 5절, 9절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바락은 저주를 지칭하기 위해 완곡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과 21절에서 "복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완곡어법의 사용은 욥이 저주를 의미하는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상한 병치를 생성합니다. 1.21에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 작업할 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종류의 단어 유희를 만듭니다. 그리고 barak이 완곡어법인지 아니면 실제로 "축복받은"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문장의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극한 재난 3:52-4:35]

물론 이제 챌린저호에 자유의 손이 주어지면 그 결과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신성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모두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영역이 커버된다는 사실은 모두 절대적인 재앙을 가져온다. "오직, 나는 탈출했다"는 말은 모두 극단적인 그림의 일부이다. 책의 전체 그림이 잘 되려면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욥의 반응[4:35-5:50]

반대로 우리는 욥의 반응을 봅니다. 우선 그는 일반적인 애도 행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설명했습니다. 부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응답이며 인정과 수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주목하고 그는 이것을 악한 대리인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며 연설을 끝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고 적신이

떠나가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 욥의 입에서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지만, 모든 연설과 담화를 통해 야훼는 우리가 38장에서 야훼의 연설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엘, 엘로힘 또는 엘 샤다이로 언급합니다. , 여기 프롤로그와 야훼의 연설을 제외하고는 절대 야훼가 아닙니다.

축복/저주 바락 말씀 재생 [5:50-7:20]

도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연설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챌린저가 하겠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도전은 그가 바라크하고 바라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챌린저가 말한 것과 같지만 반대입니다. 좋아요? 도전자가 그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욥은 면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하지만 완곡한 의미는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책 전체에서 이런 종류의 순수한 반응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보다 더 쉽습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강해지기가 조금 더 쉽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 책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정보: 천상의 장면 [7:20-9:39]

이제 책의 수사적 전략에서 이 천국의 첫 장면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선, 그것은 욥이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답변이 제거됩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여지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극단은 고려할 여지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욥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장면은 하나님의 정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욥은 단지 테스트 케이스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장면이 숨겨진 정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도 하늘에서 이 장면에 대해 배우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욥에게는 어떤 종류의 이유나 대답이나 설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정보가 책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고 행동 과정을 승인하셨음을 주목합니다. 그는 그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챌린저가 전개되는 이 특정 상황에 대한 단순한 축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장면 자체는 욥의 지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책임을 묻거나 그를 평가할 수 있는 비하인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림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은 등식으로 축소될 수 없다[9:39-10:16]

욥은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이 단순한 등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실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면, 이 첫 번째 장면은 시나리오를 열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두 번째 장면이 있고, 다음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아들들[10:16]

욥기

세션 11: 천국의 광경, 파트 2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Scene in Heaven, Part 2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장면 소개 [00:23-1:21]

이제 우리는 천국의 두 번째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욥이 그의 모든 소유물 곧 그의 양과 소와 그의 낙타와 그의 소와 그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훼와 도전자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있습니다. 아니, 미안해, 3절. “여호와께서 도전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니라” 그가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선동하여 그를 죽이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충절을 지켰느니라.” 좋아요.

선동하다[1:21-4:31]

이제 그 문구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선동하다”라는 이 동사의 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트 “*sut*”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히브리어가 있는 분들에게는 때때로 원인이 되는 히필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끔 간접 목적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챌린저입니다. 물론 동사는 “선동하다”입니다. 직접 목적어는 “당신이 나를 부추겼습니다” 야훼이고 간접 목적어는 “그를 대적하여 그를 파멸시키려고” 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고에 관련된 세 당사자, 도전자와 야훼, 그리고 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종류의 문맥에서 동사를 사용하는 세 곳이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무엘상 26:19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는 여호와입니다.

대상은 사울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추겨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David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선동한 것은 야훼 또는

그의 분노입니다. 좋아요. 그는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 따라서 야훼가 주제입니다. 다윗은 직접 목적어이고 이스라엘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예레미야 43 장 3절에서 바룩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인 예레미야를 선동하는 주체입니다. 죄송합니다. Jeremiah는 직접적인

목적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옴기 2장 3절

외에 이 동사를 사용하고 주어와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있는 이

설정을 가진 세 곳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면 사용법과 작동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유도된 행동은 간접 목적어에 대해 항상 부정적입니다. 좋아요? 선동 행위는

본질적으로 최악이나 악한 행위는 아니지만 간접 목적어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다. 결국, 때때로 야훼는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죄가 있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욥은 직접 목적어로서 도전자가 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야훼는 욥에 대한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간접목적어로서의 Job은 주어로서의 Challenger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는 야훼의 역할만을 이해합니다. 그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도전자는 야훼를 선동하여 다윗을 대적하게 하였다. 미안해, 욥.

까닭 없이[힌남][4:31-6:24]

그래서 1장 9절에서 도전자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라는 단어 힌남이 사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유 없이 그를 선동했다. 그래서 2:3에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 1:9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도전자는 까닭 없이 야훼를 격동시켜 욥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힌남* 입니다.

이것은 헛된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6:10에서, 또는 사무엘상 25:31에서와 같이 불필요하게 행해진 일, 또는 심지어 보상 없이 행해진 일, 예레미야 29:15에서. 그리고 물론 욥기 1장 9절의 의미는 그것이 보상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유 없이 한 일, 즉

과분한 대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엘상 19:5 또는 열왕기상 2:31과 같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그를 반대하도록 나를 선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챌린저가 선동했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옅은 도전자의 역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장면의 차이 [6:24-7:18]

그렇다면 이번 2라운드 결과는?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모든 긍정적인 것, 번영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네거티브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을 얻습니다. 아이디어는 챌린저가 제시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글썄요, 모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나 참을 수 있지만,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2라운드는 신체적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상실과 슬픔과 관련된 정신적 괴로움을 가져왔고 두 번째 라운드는 고통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덤프: 추방 및 배척 [7:18-8:18]

욥에게 나타난 피부병은 그를 도시에서 추방하고 떠돌림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피부병을 그런 식으로 치료했습니다. 배척당하는 이유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서 쫓겨났고 결국 잿더미로 언급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것은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것은 똥이다. 욥은 결국 도시 쓰레기장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수사적 전략 [8:18-9:19]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천국 장면의 수사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신실함에 대한 유일한 동기가 유익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버릴 모든 기회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는 손실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낼 모든 기회를 갖게 합니다. 고통을 참는 것과 상실을 참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확대되었고 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아내와 세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들 각각이 가진 역할과 그들에 대한 그의 반응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Scene in Heaven, 파트 2입니다. [9:19]

욥기

세션 12: 아내와 친구의 역할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아내와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소개 [00:23-00:42]

잠시 시간을 내어 욥과 그의 아내의 친구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그들은 여기에서 2장 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거리에서 그것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역할이 있는 친구 [00:42-2:55]

친구부터 시작합시다. 우선, 우리는 친구를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각자 역할이 없다면 세 명의 친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개별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기억할 수 있듯이 저는 이것을 문학적 구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매우 의도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저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캐릭터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독자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뭉쳐서 기업 그룹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각자가 하는 역할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엘리바스는 설명하면서 욕에 대한 그의 언급은 개인적인 경험의 무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이야기, 보고 경험한 것과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이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빌닷은 시대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그룹의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에게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Zophar는 사고 체계에서 이해를 찾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일을 체계화합시다 . 올바르게 구성하면 모든 것이 흑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성격,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시대의 지혜,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으로서 친구의 역할[2:55-4:30]

동시에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공통점도 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집단적으로 고대 세계의 현자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바로 여기 세계 최고가 있습니다. 1위,

2위, 3위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지혜의 정점을 제시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들은 호일입니다. 책이 그것들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평판을 얻고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허술한 가정에 기반한 알고 부적절하며 결함이 있는 추론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혜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혜의 대표자로 오지만, 대신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된 바보로 일축됩니다. 책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취하여 귀를 기울이고 즉석에서 거부하는 것은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도전자의 대표자로서의 친구 [4:30-7:28]

친구들은 집합적으로 Challenger의 철학적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도전자가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는 보복 원칙 사고를 나타냅니다. 그곳이 그들이 요새를 짓는 곳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작업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는 가정하에 작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그가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연설 내내 임의의 거친 추측을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고백하십시오.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친구들은 물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챌린저가 욥이 물건을 잃으면 의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같은 맥락에서 논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귀하의 물건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그들을 믿는다면, 욥이 그 라인에 따라 대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물건에 관한 것이고, 나는 단지 내 물건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도전자가 옳았고 욥의 의로움이 실제로는 결국 물질에 관한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이 무심코 챌린저호가 제기한 바로 그 요점에 대한 의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건에 관한 것이니까, 아니면 의에 관한 것이니까? 도전자는 그것이 물건에 관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도우려고 했지만 그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오해 [7:28-9:03]

이제 친구의 역할을 이해하면 친구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오해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역할은 독자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주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욕기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주는 작은 위로가 무엇이며 그들이 욕을 위로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꽤 거칠다. 그러나 독자는 "글쎄, 이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알았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역할 모델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지만 어떤 종류의 역할 모델도 아닙니다. 그들은 롤 플레이어입니다. 그들은 책에서 중요한 문학적, 신학적, 철학적, 수사학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책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 그들과 함께 책에서 가르침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욥의 아내의 역할 [9:03-9:56]

친구를 위해 너무 많이; 나중에 구체적인 연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관심을 돌리자. 이제 그녀가 말할 때 욥은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두 단계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번영을

잃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옆에 앉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울고 있는 대화 상대로 데려오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 그녀는 실제로 그런 성격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롤 플레이어입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도전자 편에 서서 욕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자 합니다.

도전자를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서의 아내 [9:56-10:26]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은 챌린저의 입장에서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만약 욕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면, 알다시피, 모든 의로움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녀는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신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는 “그래, 다 잊어버려, 버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습니다.

나란히 밀어붙이는 친구와 아내 [10:26-13:37]

친구는 아내에게 같은 종류의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그 물건을 되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친구들과 협력하고 Challenger와 협력하여 그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가 그의 물건보다 더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은 욕 자신의 정신적 작용에 그냥 맡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밀리고 친구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는 “신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그녀가 다시 연기하는 역할이지 당신과 함께 애도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의 저자가 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장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순간의 전략 일뿐입니다. 물론 욱은 미련한 여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환난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친구들처럼 챌린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다시 한 번, 욱이 친구의 조언을 따랐다면 도전자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욱이 아내의 조언을 따랐다면 도전자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아내의 수사학적 역할은 결국 일회성이다. 그녀는 한 가지 진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선 챌린저의 빠른 승리를 피한다 .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욱에게 다시 한 번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고통과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욱은 충실함을 유지합니다. 셋째, 물론 그녀가 친구들보다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프렌즈로의 전주곡이자 트랜지션 역할을 한다. 넷째, 친구들이 갈 방향과 반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친구들은 욱에게 새로운 혜택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아내와 친구 모두 혜택이 방정식에 필수적이라고 가정하고 도전자가 제안한 방향으로 욱을 끌어들이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전자의 대리인 [13:37-14:37]

따라서 그들 모두, 친구와 욱의 아내는 모두 챌린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면이 설정되었습니다. 하늘의 장면이 끝났습니다. 대화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머무를 지상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상 영역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Challenger는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의 대리자 친구들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의 욱의 탄식과 대화 섹션의 첫 번째 일련의 대화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전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욱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아내와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14:37]

욥기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입니다.

욥의 탄식(욥 3) [00:27-6:10]

대화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장에는 전체 섹션을 시작하는 욥의 애가가 있습니다. 이 책의 구조에서 욥의 탄식은 책의 끝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두 가지 반응과 부분적으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책에서 비슷한 균형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의 한탄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애가의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얻었지만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곡하게 작동하는 " *barak* " 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qalal* 인데 , 능력의 단어가 포함된 주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일에 대해 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그는 그날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저주"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단어입니다. *Barak*은 완곡 어법으로, *qalal*은 권능의 말씀이 담긴 주문이지만

그날 저주는 'arar'이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 질서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라르' 입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모두 "저주"로 번역되지만 뉘앙스가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그는 또한 Leviathan을 깨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런 일에 손을 대는 점쟁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리바이어던은 비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옴은 혼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탄생일에 맞서 리워야단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애도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궁에서 곧장 저승으로 갔거나 사산아처럼 유산했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텍스트의 전개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현재의 삶의 비참함과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돌아봅니다.

물론 애가는 옴이 드리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 모두에게 영혼을 찢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때때로 옴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실제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적 관점에서 서사와 프롤로그에서 연설의 직접적인 담화로 장르의 전환을 통해 프롤로그와 연설 사이의 전환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신학적 강조점을 제공합니다. 애도에서 우리는 프롤로그 섹션의 답변에서 확신에 찬 욕에서 이제 혼란스럽고 질문하는 욕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욕은 슬픔에 잠기며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영원에 대한 희망도, 상급과 형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이스라엘인인 욕은 훨씬 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죽음이다. 해결이 아니라 탈출이다. 이 시점에서 삶도 죽음도 그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지만, 그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유를 묻는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시작했음을 봅니다.

11, 12, 16, 20, 23절, 왜? 왜? 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욕기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질문에 답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질문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욕의 탄식은 그가 실제로 자신이 얻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암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신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욥의 충절 [6:10-8:00]

이제 욥이 유지하는 이 충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충절은 1장과 2장에 있는 그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설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결성은 그의 의로움이 그 자체로 서 있다는 그의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의를 위한 것이지 그가 얻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그가 유지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난은 명백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반응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그가 잘못했다고 비난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탁자 위의 질문이다. 욥의 의로움, 사심 없는 의로움, 그리고 욥의 성실함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에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 소개 [8:00-8:20]

이제 대화 의 1주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4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이 말합니다. 욥은 첫 번째 주기인 4-14장에서 응답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4:6[8:20-10:15]

이 주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책에 중요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에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4장 6절에 있는 4장 6절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욥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건함이 당신의 확신이 되고 당신의 흠 없는 길이 당신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이 자칭일 뿐이며 그의 확신이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의 행실이 흠이 없다고 추정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욥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따라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욥의 경건함이나 그의 흠 없는 면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충분할 것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매우 어려운 히브리어를 번역하려는 시도의 복잡성 중 일부에 대한 예일 뿐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4:17[10:15-14:21]

또한 엘리바스의 연설에서 우리는 그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가 이 환상에서 보고하는 환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계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 경험의 전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가 생각하는 위대한 통찰력, 깊은 진리에 대한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4장 17절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NIV에서 번역된 방법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으신 자 안에서 더 순결 할 수 있느냐 이제 잠시 생각하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그게? 모두가 그걸 몰라? 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왜 이 신비한 경험을 길게 설정했는가?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지 확인하십시오. 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순결"로 번역된 이 용어인 *타하르* 는 결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순결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거나 불순하다고

묘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특징지을 수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순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의 상태에서 얻은 깨끗한 상태를 가리킨다. 신은 결코 부정의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은 부정의 상태에서 달성된 상태인 *타하르* 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의 전통적인 번역을 따른다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우를 과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신비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순수하거나 덜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 대체 독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의 관점에서 깨끗할 수 있느냐?" 여기서 Eliphaz는 절대적인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끗하거나 의로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추구하면서 엘리바스는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제공하는 읽기가 상세한 히브리어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출판한 주석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치료의 전체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7:17[14:21-18:44]

7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욥의 연설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7-21절은 욥이 제시해야 할 가장 신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의 일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단지 숨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읽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내 심령의 괴로움으로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원망하리니 내가 바다괴물이나"입니다. 내가 적인가? 그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내 침대가 나를 위로하고 내 소파가 내 불만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당신은 꿈으로 나를 겁주어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경멸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 내 하루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은 17절에 이르러 매우 흥미롭고 친숙한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뭐길래 그렇게 우습게 만드냐?"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즉시 시편 8편의 내용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든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옴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끊으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그는 인류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쭐대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는가? 그리고 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그것들을 조사하고, 매순간 그것들을 시험합니다. 제발 저를 외면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초대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검토하도록 초대하는 시편 기자와는 매우 다릅니다. 옴에게는 “제발 눈을 떼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이고 물론 옴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암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목표로 삼았느냐? 내가 왜 짐이 되었느냐?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옴의 연설에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보다 점점 더 하나님께 관심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벨이 울리나요? 1장 4절과 5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가? 그래서 옴은

아들딸들을 위해 이 모든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생명체와 달리 옘은 자신이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람을 감시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보살핌과 보호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를 자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옘은 자신이 이미 재판관 받고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도록 정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미 재판관이 벌어졌고 유죄 판결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7:20[18:44-19:31]

20절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옘은 그런 가능성조차 내버려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내가 어떻게든 호의를 얻지 못하여 당신이 나에게 불리하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의미할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내가 한 일을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저를 벌하시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가상의 영역에서 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요한 진술: 13:15[19:31-22:31]

한 구절 더. 나는보고 싶다; 좀 자세히; 13장에 있습니다. 욥기에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번역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입니다. 번역과 주석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번역에서 다양한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보라.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우와. 그것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체 히브리어 읽기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 대신에 그것은 부정인 Ketiv입니다. 둘 다 같은 *lo* (그에게)와 *l'o* (아니요)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또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또 다른 논평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다른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입자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희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기에 동의하는 다른 세 명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예", "만일", "보라" 또는 "하지만"이 아닙니다. "그래, 그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것은 "희망"으로 번역되는 단어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희망”과 “기다림”과 매우 가깝게 들립니다 .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는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좋아요. 나는 약간 다른 전술을 취할 것입니다. 나는 그 뒷부분에 동의하지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옴이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당신이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서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옴은 일종의 용기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묵묵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주장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어려운 구절이며 다양한 주석가들과 번역자들은 그것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 요약 [22:31-23:00]

사이클 1의 인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수사적 전략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연설이 대화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단지 화려하고 시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의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요약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욱의 반응 [23:00-24:40]

그래서, 1주기에서 엘리바스의 연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경건을 믿으십시오. 보복 원칙이 유지됩니다. 멸망하는 것은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없습니다. 그의 징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것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욱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 비참함의 정도가 내 부르짖음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나는 적어도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했다는 위로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낀다.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고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 주시면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나날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아무도 그러한 조사를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약간의 관용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요약된 욱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그러자 엘리바스의 충고는 하나님께 호소하여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대답: 거짓 겸손과 날조된 범죄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명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빌닷의 말과 욥의 반응 [24:40-26:23]

1주기에서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히 신이 공의를 왜곡한다고 제안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빌닷은 시대 의 대변자 의 지혜입니다. 감히 신이 공의를 왜곡한다고 제안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죽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즉 보복 원칙을 제공합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와요, 욥, 물건을 되찾아오세요.

빌닷에 대한 욥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와 논쟁하고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압도하기에는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묻는 것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흠 없는 자와 악한 자 모두 멸망합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신이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욥의 대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조언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복 원칙은 불가피한 결론을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욥의 대답: 나는 전통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결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다.

소발의 말과 욥의 반응 [26:23-28:00]

우리는 Zophar에 도착합니다. Zophar, 그가 흑백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오만? 당신은 당신이 너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썄,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해력은 하나님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포기하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십시오. Zophar는 매우 흑백 용어로 사물을 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반응. "나의 친구들아, 나를 놀려라. 너희가 잠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이려거든. 너희는 위로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제넘고 무지하게 말하느니라. 악인들이 면책을 받는 동안 나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 지혜와 힘. 내가 그에게 내 사건을 제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빈틈없는 변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통과 공포를 중단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라토리엄을 감안할 때 , 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내 잘못의 증거를 보여줘 이번 생이 내 전부니까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소발의 충고는 한마디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 당신은 하나님과 나 모두를 나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청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 주기의 결론 [28:00-28:50]

결론적으로 이것이 1주기의 요약입니다. 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 각 친구의 연설은 의로움의 혜택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시리즈의 주요 초점은 친구들이 욥에게 혜택을 되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욥이 회복의 희망이 없고 그의 친구들이 최고의 가치로 둔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두 번째 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3, 대화 시리즈 1, 작업 3-14입니다. [28:50]

욥기

세션 14: 대화 시리즈 2, 욥기 15-21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대화 시리즈 2, 작업 15 - 21입니다.

소개 [00:26-00:58]

대화 섹션의 두 번째 주기에 다시 들어가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말하고 욥이 그들 각각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섹션에서 특정 구절을 목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클 1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의 수사적 전략을 여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연설을 요약한 다음 각 대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룰 것입니다.

주기 2: 엘리바스와 욥의 반응 [00:59-2:35]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두 번째 연설인 엘리바스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욥, 당신의 허풍은 수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깊은 구멍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닥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부패의 결과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쫓겨나므로 그들과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욥의 대답: 엘리바스, 말은 쉽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더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신이시여,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당신은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나를 버렸고, 불쌍하게도 당신 자신과 합류했습니다. 내 불행에 대응할 수 없다면 나를 위해 일어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전부이지만 의의 행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응답을 종합하고 간단히 말해서 엘리바스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는 방식과 그분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일치시켜 비교함으로써 당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당신은 경건을 무효화했습니다. 욥의

대답: 나는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2주기: 빌닷과 욥의 반응[2:35-3:36]

그것은 우리를 빌닷의 이야기로 이끕니다. Bildad는 지금 더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런데 욥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욥은 당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삶을 영망으로 만들었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멸시받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것이고 모든 것이 마침내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정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나보다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빌닷의 일반적인 충고는 가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합니다. 당신은 그들 중입니다. 당신은 신을 모릅니다. 욥의 대답은 내 인생을 영망으로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당신의 암시로부터 나를 변호할 것입니다.

주기 2: 소발과 욥의 반응 [3:36-4:58]

그런 다음 Zophar로 이동합니다. 물론, 언제나처럼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Zophar는 말합니다.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선이 당신을 배반합니다. 그러한 교만이 악인 소발의 특징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반응: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복잡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일관되게 징벌하지 않으신다면, 의인을 일관되게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 이것은 실제로 욥이 보복 원칙을 부인하는 데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궁금하네요, 그렇게 될 수는 없나요?

그래서 Zophar의 평가에서 당신의 죄는 당신의 교만입니다.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충분히 말했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욥의 대답,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주기 2 요약 [4:58-5:54]

그래서 두 번째 주기에 대한 우리의 요약: 두 번째 주기 전체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보응 원칙의 전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론은 명백히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사악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욥의 마지막 연설은 보복 원칙을 거부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욥은 자신의 의를 변함없이 주장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의 모퉁이에 요새를 짓고 기꺼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해결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친구들이 제안하는 자백과 회유 해결을 거부합니다.

입증(욥) 대 회복(친구) [5:54-7:34]

욥은 계속해서 회복보다는 입증을 주장합니다. 보세요, 그것이 의로움과 물건의 차이점입니다. 옹호는: 당신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복원이란: 내 물건을 돌려줘. 친구들은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성실성을 정의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욥은 회복보다 신원을 주장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옹호를 비현실적이고 헛된 기대로 여깁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욥은 악한 자들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이 틀림없이 그를 악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편이 낫겠다, 욥. 이것은 당신이 속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가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점점 더 악인들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주기 2에 있는 잘 알려진 구절의 작은 부분 중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다루고 우리가 방금 요약한 주기 2에서 그것과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대화 시리즈 2, 욕기 15 - 21입니다. [7:34]

욥기

모임 15: 욥기 19:25--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욥기 19:25입니다.

서론: 욥기 19.25 [00:23-2:02]

19장의 중간에 있는 욥의 연설에서 빌닷에 대한 응답은 욥기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NIV로 번역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겨진 후에 내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내 눈으로 그를 보고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리고 물론 이 구절들은 Handel의 Messiah와 “I Know My Redeemer Lives” 라는 멋진 노래 때문에 매우 친숙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썄, 그것을 통해 작업하자.

우선, 욥이 자신의 법적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지나간 많은 언급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변할 사람, 그의 사건을 맡아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변호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시사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욥이 이 위치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책에는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옹의 역할을 맡을 누군가의 같은 종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옹호자 = 옹의 외침의 의인화 보기[2:02-2:44]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옹은 어떤 종류의 옹호자를 찾고 있으며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그는 이 옹호가 어디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까? 훌륭한 해설인 DJ Cline의 해설은 옹호자를 비인격적으로 옹의 순진함의 외침을 의인화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외침 자체가 그 소리를 내는 목소리 없이도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버렸을 때 그것이 그의 변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vocate [*goel*] = 하나님 또는 인간의 상대적인 관점[2:44-3:49]

두 번째 견해는 좀 더 전통적이며 매우 일반적인 견해로, 하나님이 옹호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중재자는 당사자, 특히 불의로 고발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신에 대한 변호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변자 역할이 인간 친척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며 *고엘*은 히브리 사회의 씨족 내에서 특별한 법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권리를

옹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친척이라는 생각은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친척들은 그를 버렸다. 따라서 그가 그러한 계급의 옹호자를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옹호자 [고엘] = 엘리후 보기 [3:49-4:14]

나중에 우리가 엘리후의 연설에 이르면 엘리후는 자신을 변호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것처럼 그는 자신에 대해 높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되지만 그는 자신을 투사하지만 옹과는 다른 종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입증을 그 결과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옹이 찾고 있는 *고엘* 이 아닙니다.

옹호자 [*goel*] = 신성한 위원회의 구성원 [4:14-6:49]

내 생각에 가장 가능성 있는 선택은 옹이 신성한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옹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결정이 내려지는 하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옹기 33장 23절과 24절에서 엘리후가 언급한 선택입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기본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5:1과 22:2, 3에서 엘리바스가 일찍이 버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이론적인 가능성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22장 2절과 3절에 나는 그것에 대한 재번역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어려운 두 개의 구절을 번역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내 해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중보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보자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좋게 여기시겠느냐 당신의 길.” 그것이 엘리파스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여기에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전체 옵션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이 자신을 돕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변호인이나 중재자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 천상의 궁정의 일원이었을 때 그가 천국의 광경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도전자라는 옹호자가 이미 참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었고 그것이 욥을 이 문제에 빠뜨렸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도 이길 수 없었다. 만일 욥이 하나님에 대해 옳고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숭배받을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전략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구속자[*goel*]는 예수가 아니다[6:49-8:01]

그래서 여기 욥기 19장 25절부터 27장까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번역본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것을 볼 때 그들은 구속자가 예수라고 가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대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문자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 작품이지만 우리의 해석 지침은 아닙니다.

욥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그가 원하는 옹호자입니까? 어떤 신약성경 저자도 19장에서 예수님과 욥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욥 자체의 맥락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신약성경 구절이나 저자도 우리에게 확대되고 보충된 해석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엘의 역할은 용서가 아닌 입증입니다 [옹호자/구속자] [8:01-10:34]

고엘 은 구속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고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이 연루된 경우 **고엘**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행해진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고엘은 *사람*에게

행해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이 행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고엘 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찾는 역할이 아닙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할 대언자, *고엘 이자 구속자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범죄에서 그를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를 인정하면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자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엘이 살아 있음* 을 확신합니다 . “나는 내 *고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욥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동사는 자신의 간증을 제공하기 위해 문학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그는 *고엘이* 자신의 배설물 더미에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옹호자가 여기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는 [10:34-12:27]

따라서 “내 가족이 벗겨진 후에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개념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욥이 부활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사후에 입증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든 변명하리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욥이 마지막 순간에 유예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가 “내 살갓이 벗겨진 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살갓을 긁어내듯이 자신의 살갓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내 육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부가 사라졌지만 그것은 과장입니다. 그는 그것을 긁어모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가족/살이 아주 잘 다듬어졌습니다. 욥은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총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더 이상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약 의역 [12:27-13:08]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의역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바로 여기 내 배설물 더미에서 나를 대신하여 증언할 누군가가, 아마도 신성한 의회에서 온 것이지만 불특정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벗겨진 피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의 호의를 회복하고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그건 그렇고, 변영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욥의 확인: 용서가 아니라 옹호 [13:08-14:03]

이것은 욥의 입장에서 중요한 확인입니다. 구세주를 예수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지만 여기서 욥이 찾고 있는 구속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자신을 의롭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당화가 아니라 입증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을 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옹호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할과 정반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엘이 아니다 [14:03-14:58]

욥기에서 예수님을 *고엘*로 보는 것은 욥기의 해석을 왜곡시키는 요소이며 욥의 소망과 소망의 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깨어짐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이시기는 하지만 욱기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중재하지만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나 인생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욱기가 하는 일이며, 우리는 욱기가 페이지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욱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5회기입니다.

욕기 19.25.

[14:58]

욥기

세션 16: 대화 주기 3, 작업 22-27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대화 주기 3, 작업 22-27입니다.

대화 주기 3 소개 [00:26-00:46]

이제 대화의 3주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기 3은 대부분의 인수가 소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습니다. 이 주기에서 Zophar는 전혀 말하지 않고 Bildad는 매우 짧은 연설을 합니다. 따라서 대화 자체에는 내용이 적습니다.

어려운 구절: 욥기 22:2-3 [00:46-6:32]

그러나 우리는 다루어야 할 매우 어려운 구절이 몇 개 있으므로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다루고 요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분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2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NIV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롭다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방식이 흠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얻겠습니까?"라고 번역합니다.

번역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번역과 해설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예를 들어 Norman Habel은 말합니다. “영웅이 E1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자가 고대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롭다면 Shaddai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방식을 완벽하게 하면 그의 이익입니까? Hartley는 번역합니다. , “지혜로운 사람이 그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결백하거나 당신의 방식이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Shaddai에게 어떤 자산입니까? Cline의 번역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의롭다면 전능자에게 유익하겠느냐 행위가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랴” 그 사이에 다양한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에 있는 동일한 종류의 구문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절에는 매우 복잡한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다른 구절의 구문에 기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를 설정합니다.

나는 다른 제안을 할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가 발생하는 세 구절: 욥기 13:7, 욥기 21:22, 그리고 이 구절 욥기 22:2, 나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지혜로운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4:9은 " *gever* " 라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람"으로 번역되지만 하벨은 "영웅"으로 번역했습니다. 내 렌더링과 다른 렌더링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나는 히브리어 본문과 대부분의 번역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히브리어 *마스킬* 의 번역인 첫 번째 문장의 주제로 "현명한 중재자"를 넣었습니다 . 그러나 다시, 내가 지적한 이 다른 구절들은 그것을 첫 번째 줄의 주제로 적용할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지적했습니다. 나는 동사 *sakan*을 "어떤 선을 행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유익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행동에서 문법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언급한 다른 구절을 기반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두 사건에 근거한 결정은 우리가 욥기의 다른 곳에서 설정된 구문을 찾는 방법과 일치하도록 이 구절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절의 첫 줄에 있는 동사를 단순히 "의롭다" 또는 "무죄하다"로 번역한 다른 번역본과는 달리, 나는 욥기 40장 8절의 증거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하신다고 비난합니다. 동사 *사닥* 의 *칼* 형태는 더욱이 욥기에서 입증을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1.2 및 13.8입니다. 마지막으로, 22.3의 마지막 동사인 타맘에 대한 어근의 히필 형태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위의 번역은 그것을 "흠이

없다” 또는 “흠이 없다는 주장”으로 표현된 형용사로, 또는 심지어 “당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라는 동사로 다양하게 취급합니다. 여덟 번만 나오는 히필의 동사 형태입니다. “당신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십시오”에 대한 나의 번역은 다른 많은 맥락에서 대략적으로 지불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찰에 근거합니다. 특히 열왕기하 22:4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문법적 및 구문적 상황을 바탕으로 “현명한 중재자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지혜로운 중보자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중보자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면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까? 당신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설명?”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구문 및 어휘 사용과 함께 책에서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주장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 욥기 26:7 [6:32-13:36]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욥기 26장 7절입니다. NIV는 그것을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시시며”라고 번역한다. 일부 지도자들은 “무위에 지구를 매달다”라는 마지막 문구를 보고 욥기에서 어떻게든 지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중력과 구심력과 그 모든 것들에 의해 책이 그것을 가정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북쪽 하늘을 펴냈다." 북쪽에 대한 단어는 *zaphon* 입니다. 그것은 북쪽에 대한 상당히 정상적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신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산인 사폰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나침반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의 문헌에서 알려진 신성한 산에 대한 참조로 사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시편의 일부가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Zaphon은 단순한 방향 그 이상입니다. 우주 산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주 산은 저승에 기초가 있고 하늘에 높이가 있으며 신성한 회의는 그 높이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의 장소이며 신들의 모임을 위한 소집 장소이며 따라서 그들의 거처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Zaphon을 그런 종류의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동사 "그는 자폰을 펴뜨린다. "펼친다"는 히브리어 단어인 *noteh*는 그가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는 허공에 하늘의 무언가, Zaphon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는 단어는 *tohu* 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 *tohu vabohu* "혼돈하고 공허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창세기 2장과 우리가 발견한 다른 30개 이상의 단어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주문. 그래서 이것은 질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위에 *tohu* 위에 하늘의 *Zaphon*을 펼친다는 생각입니다 .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우주의 물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그들은 존재가 기능과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판단하는 물질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영역으로 명령을 받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Zaphon*이 *tohu* 위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고, 순서가 없는 우주의 물 위에 하늘이 실제로 뻗어 있는 우주의 물을 나타냅니다. 시편 104:2, 3.

첫 번째 줄의 *Tohu*는 두 번째 줄의 독특한 문구인 *velema와* 평행을 이룹니다. 그것은 다시 NIV가 "아무것도"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며 물론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른 사용 예가 없으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지구가 매달려 있는 무의미한 공간이 시대착오적일 것이라는 생각. 고대 세계나 히브리어 성경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집트식 의미로 기능이나 질서가 결여된 것을 가리킵니다

. 이 두 번째 절의 동사는 “중지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talach* 입니다. 그것은 종종 누군가를 교수형에 처하는 처형의 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 누군가를 피켓이나 그와 비슷한 것 또는 나무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매달린 상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over”가 아니라 “suspended 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땅”이라는 단어조차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과 고대 근동 동족어 모두에서 몇 가지 예에서 그것은 또한 지하 세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eretz*가 지구 자체가 아니라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 줄의 *tohu* 와 두 번째 줄의 *belema*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물입니다. 우리는 위에 우주의 물이 있고 아래에 우주의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Zaph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eretz*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나의 번역은 “하늘은 우주의 비존재 위에 펼쳐져 있고,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위에 매달려 있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두 구절은 율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어 번역을 열 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텍스트가 이해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단어,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 또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알려진 단어가 많이 있지만 영어 단어로 완전한 뉘앙스를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히 시적 텍스트에서 구문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번역가는 최선을 다하고 해설자는 모든 것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텍스트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옹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언급한 두 가지와 같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주기 3의 수사적 전략 [13:36-13:53]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른 수준의 이해에서 우리는 수사학적 전략과 순환의 일반적인 의미, 대화의 순환을 볼 수 있고, 몇 개의 구절이 여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3주기: 엘리바스와 옹의 반응 [13:53-16:33]

따라서 세 번째 주기의 주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론 Eliphaz는 친구들의 주요 스피커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재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욥이 전에 이것을 중재자, 변호자, *고엘*, 구속 자라고 한 적이 있으니, 중재자와 듣는 것에 대한 너의 모든 말은 공허하다. 연막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악한 불의한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조치는 듣기 시작하고 논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누리게 될 모든 혜택과 호의를 상상하십시오. 이제 Eliphaz가 귀하의 물건을 되찾는 데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여전히 그를 친구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혹한 단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가 그랬다면 그는 더 이상 욥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의 고발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진술을 요약할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만 그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하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위치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난장판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억압적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가난한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는 폭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제멋대로 일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결국 그들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욥이 여전히 보복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여전히 보복 원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환경과 경험이 실제로 그 원칙을 잘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충고는, 회개하고, 회복되고, 순회 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약간 우스꽝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회에 가십시오. 욥의 대답: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어긋나 있는데 누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엘리바스와 욥의 교환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주기 3: 빌닷과 욥의 반응 [16:33-18:04]

이제 Bildad는 몇 구절에 뛰어 들어 기본적으로 시대의 지혜를 기억합니다. 빌닷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어쨌든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빌닷.

빌닷에 대한 욥의 반응: 당신의 입장은 터무니없고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의 광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주에 세우신 모든 질서에 대해 26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는 내 삶에 무질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안한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바로잡게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안한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원수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ildad의 조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통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욥의 대답: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주에 질서를 가져왔지만 내 삶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의 희생자이고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는 나의 의로움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일련의 연설의 철학적 초점과 결의는 욥이 죄를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대화 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단호히 부인하는 자신의 비난을 설명합니다.

도전자의 고발로 돌아가기 [18:04-19:24]

책의 시작부터 욥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심 없는 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계없이 욥이 자신의 충절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의 그의 정직을 유지하는 한 그의

의는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에 관한 것이므로 도전자의 비난은 돌이킬 것입니다.

친구들과 아내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보다 재산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그 위치를 대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욥은 그런 생각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대화 섹션 결론 [19:24-21:02]

그것은 우리가 27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욥의 마지막 말에 있고, 나는 그것을 요약했을 뿐이지만, 대화 섹션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봅시다. 나는 실제로 27장 2절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 내 입술이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시만요; 그가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가 범했다고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한다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성실함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무결성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 "나는 내 순결을 지키고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그럴 자격이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성실성입니다.

도전자의 사건이 종결됨: 욥이 결백을 지켰다 [21:02-21:43]

이 연설, 대화 섹션의 마지막 말뚝은 챌린저의 주장에 대한 처리를
 결론으로 가져옵니다. 이 시점에서 Challenger의 사건은 끝났고 그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욥은 가장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릇된 생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지켰습니다. 욥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헤어짐 [21:43-22:17]

그는 친구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임으로써 번영의 회복을 추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책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대화 주기가 끝나면 Challenger의
 경험은 제쳐둡니다. 친구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언급되는 마지막
 부분까지 책의 두 번째 부분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담화 섹션으로 전환 [22:17-22:49]

여기서 우리는 담화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은 욱의 비난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28장에 있는 지혜로 찬송가에서 발견되는 전환을 보게 될 것이며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욱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대화 주기 3, 작업 22-27입니다. [22:49]

욥기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 막간 28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의 막간 챕터 28입니다.

검토 [00:25-1:54]

이제 우리는 이 막간 장, 28장에 있는 지혜에 대한 찬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곳을 조금 검토하여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대화 섹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끝냈습니다.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욥은 새로운 혜택에 대한 기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복원칙이라는 제도가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대화의 시리즈 2였습니다. 그는 재난의 원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대화에서 시리즈 3, 사이클 3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책을 수호하는 별 증인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분은 사심 없는 의로움과 같은 것이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인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정책이 비생산적이며 심지어 전복적이라는 도전자의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챌린저 사건을 변호했던 친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지혜에 찬송가(욥기 28장) - 내레이터의 중단 [1:54-2:47]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혜 막간을 통해 담화 섹션으로 전환합니다. 28장,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책의 구조를 논의할 때 28장은 실제로 다른 화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욥이 계속 말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했듯이 문제는 28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전이나 이후에 표현된 욥의 실제 관점을 전혀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종의 휴식을 주고 우리를 다른 사고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내레이터의 작업이라고 본다 .

욥기 28장의 구조, 지혜의 찬가 [2:47-3:46]

그래서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채광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 삽화의 기본적인 추진력은 채굴이 숨겨진 것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에는 지혜에 관한 수사학적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지만 가치를 넘어서고 인간의 노력과 독창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주적 논의이며 이에 대한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의

마지막 부분인 20-28절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 지혜와 질서의 결합 [3:46-5:02]

그래서 어떤 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지혜는 28:12에서 찾을 수 없지만 28:20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소스에서 찾으려는 검색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는 우주 구성 요소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질서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입니다. 지혜는 질서를 추구하고 질서를 인지하고 질서를 실천할 때 발견된다. 질서 있는 세계,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사회는 모두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우주 구성 요소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창조의 토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진행 중인 작업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 정의 초점, 하나님 지혜 초점 [5:02-7:01]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우주의 질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원칙은 그들의 운영 이론입니다. 그 등식에서 의인은 번성할 것입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상이 정돈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하나님]가 지혜를 보시고 판단하시며 확증하시고

시험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의 기준으로 창조를 승인하신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칙을 질서의 근본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들은 공의를 우주의 질서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 문구는 그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아니요, 기초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보고 평가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지혜의 기준으로 창조물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사용했던 방정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주인공 욥의 친구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설을 통해 대화를 돌이켜 보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논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18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7:01-7:26]

28절은 설정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인류에 대한 지시야, *아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리고 그가 인류에게 말했다,” 이것은 NIV입니다. “그가 인류에게 이르시되 [그는 *아담* 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대조됨 [7:26-8:49]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무엇과 대조되는지 생각해 보면 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초연하고 따라서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을 제한적이거나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여 경멸할 대상과 대조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부패한 분이므로 훈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근시안적이며 따라서 충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여 분개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도나이[주, 주]를 두려워함[8:49-11:28]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할 때 야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도나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엘로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도나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아도나이의 유일한 등장입니다. 히브리어로 Adonai는 인간이든 신이든 상관없이 권위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훼에 대한 칭호로 자주 사용되지만 야훼 자신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샤다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엘로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도나이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입에 놓여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단순히 아도나이라는 칭호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어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할 때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어 선택이 의미 있고 의도적이며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이제 다시 아도나이가 권위의 쟁점을 끌어낸다. 그것은 주님이나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의 요소를 끌어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비슷한 말씀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길로 신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관사가 있는 정관사는 12절과 20절 모두 “지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악을 피하라”는 윤리적 권고와 병행됩니다. 의식 준수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28장의 수사학적 역할 지혜 찬가 [11:28-13:08]

그렇다면 28장의 수사학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은 우리를 대화에서 담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기계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의인에게 형통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도전자의 주장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좋은 정책이 아닌 욥의 주장으로 넘어가고, 2부에서는 욥의 주장을 다룰 예정이다.

셋째,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지혜의 근원으로 그리고 방정식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로 책을 이동시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혜를 배제했습니다. 그들이 질서를 이해하면서 정의에 관한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지혜에 관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욥은 도전자의 의심과는 반대로 사심 없는 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욥의 도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질문은 욥의 도전과

연결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문이 사심 없는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던 챌린저호의 주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의로운 고통과의 일관성? [13:08-13:50]

여기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욕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의 기대가 상황이 진행되는 방향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십니다. 일관성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이 결함이 있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의 조언을 따른다고 해서 욕의 세계에 일관성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질서와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혜/질서의 근원/저자이신 하나님 [13:50-15:06]

하나님은 질서의 창시자이시며 일관성의 기초이시지만, 하나님 자신만이 일관성이 있거나 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지혜를 발휘하셨지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이 어떤 외부 기준에 따라 그를 어떻게든 우발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현명하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신은 현명하다, 신은 선하다, 신은 거룩하다 등의 확언은 형용사 자체가 실제로 신 안에서 정의를 찾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그분 안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지혜이시거나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표현된 두려움 [15:06-16:05]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당한 본성은 공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정의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좋은 방법, 즉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설정했다고 믿습니다. 타락으로 무너진 제도의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기 28장의 의의에 대한 결론 [지혜 찬송] [16:05-16:44]

28장은 이 책의 핵심 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수집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역할과 따라서 수사적 역할을 하지만 책이 제시해야 하는 신학적 메시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율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 막간 28장입니다. [16:44]

욥기

모임 18: 욥의 담화, 욥기 29-31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8회기, 욥의 설교, 욥기 29-31장입니다.

욥기의 담화 섹션 소개 [00:24-00:58]

욥기의 담론 부분은 크게 욥의 담론, 엘리후의 담론, 야훼의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은 여러 연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세 가지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에게는 네 가지가 있고 야훼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메인 스피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매우 흥미로운 상쇄 패턴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세 가지 연설 요약(욥 29-31장) [00:58-2:39]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담화 부분에서 욥의 담화, 그의 세 가지 연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약하면 29장에서 욥은 과거의 일관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이 편하고 옳았던 그 시절. 보복 원칙이 효과가

있었고 그는 행복한 야영자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9장입니다.

30장은 현재의 비일관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매우 통렬한 진술을 발견합니다. 그는 분명히 배설물 더미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시 주변에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배척합니다. 그는 모든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일관성.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기대치를 수정하거나 공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찾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죄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그의 변명을 되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듯 변명을 받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암묵적으로 그에게 변명을 줄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대화와 대조 [2:39-5:29]

그래서 우리가 책의 수사적 전략을 추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에서 찾은 것과 대조해 봅시다. 대화에서 친구들은 욥에게 일관성과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물건을 되찾는 방법을 알도록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익에 동기를 둔 것이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달성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주가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한 위대한 공생을 채택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그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당신이 그분의 필요를 채우면 그분은 달래실 것이고 그분은 당신을 돌보려 돌아가실 것이며 당신의 번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욥의 전략은 친구들이 그린 것처럼 욥의 전략은 달래기의 길을 찾고, 신의 은총을 되찾고, 그의 번영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정식입니다.

만약 욥이 그 특정한 전략을 통해 일관성을 되찾았다면 그는 이기적인 의의 관점을 채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이점에 관한 모든 것, 물건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책의 대화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욥의 의가 사심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담화에서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균형의 일관성을 향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길,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더 친숙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책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욥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행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책에 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 대화 부분에서 욥은 형통의 유익보다 자신의 의가 그에게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보다 욥의 의로움 [5:29-6:39]

욥의 이 담론에서 그의 의가 그에게 하나님의 평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근거한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자신의 모퉁이, 자신의 의로움에 요새를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31장에서 그의 무죄 맹세는 그를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입증에서 그는 회복된 일관성과 균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변명을 되찾는 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에 근거한 신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심 없는 의입니다.

욥의 무죄 맹세와 하나님의 침묵(욥 31장) [6:39-10:14]

자, 이 결백의 맹세를 살펴봅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욥이 하는 일은 그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한 일들의 전체 목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로운 삶에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모든 종류의 범죄 또는 범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욥은

반드시 이전의 번영을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명성이 입증되고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옹호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욥은 좌절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온화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기억하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법정에 들어가셔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재판의 원고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부릅니다. 그는

옹호자, 중재자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는 이 대결을 원했고, 하나님의 침묵은

귀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이 계속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 욥이 은총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결백의 맹세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영향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백을 맹세할 때 그는 이 모든 범위, 거의

포괄적인 범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이러한 범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맹세함으로써 그는 공을 하나님의 법정에 던지는

것입니다.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맹세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그에게

불리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움기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는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분은 변호를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침묵을 조작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전의 번영을 되찾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의해 그가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위와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욥의 혼돈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10:14-11:32]

이 수준의 일관성은 응보 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개인적인 독선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이것을 이기면, 이 전략이 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책을 무너뜨리고 그의 명성을 영망진창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결에서 욥이 이기면 하나님은 지혜도 정의도 없는 강력한 존재, 사실상 혼돈의 피조물로 전략한다.

3장에 나오는 욥의 비탄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왜 나를 혼돈의 피조물처럼 대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뒤집어 하나님을 혼돈의 피조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보다 더 나쁩니다. 그곳에서 신은 고대 근동 전역의 신과 같은 신으로 전략하여 위대한 공생에 참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하나님의 명성[11:32-12:37]

그러나 욥의 시나리오에서 욥이 이 전략을 통해 이기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의 결백 맹세는 테이블에 심각한 카드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위태로워집니다. 이제 그것은 욥의 평판이 아닙니다. 욥의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발은 도전자보다 하나님과 그의 명성과 그의 정책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위협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른 담론을 통해 작업하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엘리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다음 부분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8회기, 욥의 설교, 욥기 29-31장입니다. [12:37]

욥기

모임 19: 욥기 31장 1절, 그의 눈으로 맺은 언약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욥기 31장 1절, 그의 눈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소개 [00:25-1:19]

우리는 모두 엘리후의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는 욥의 무죄 맹세에 있는 한 특정 구절을 다루고 싶습니다. 나는 31:1 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NIV는 "나는 젊은 여자를 음탕하게 보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번역합니다. 그의 시리즈를 시작하는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은 실제로 내 논평에서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에 대한 NIV 적용 주석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Tremper Longman과 함께 작업한 *How to Read Job*이라는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 이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약[1:19-148]

이 구절은 언약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며 거기에는 거의 표준 용어입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본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종종 신하와 맺은 계약이며, 이 모든 것은 욥의 눈이 지배당하는 신하로 취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언약 언어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Etbonen , 정욕이 아니라 “찾는 것” 또는 “질문하는 것” [1:48-3:41]

이 구절은 성윤리에 관한 명백한 진술인 것 같으니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금지된 활동을 설명하는 두 번째 줄의 동사는 *etbonen* 입니다. 구약성서에 22번, 욥기에서 8번 등장하는 *root bin* 의 *히트파엘* 형태입니다. 이러한 인스턴스의 대부분은 개체에 대한 근접 또는 주의 깊은 조사를 설명합니다. 단 한 번만 시편 37:10이 이 특정 전치사 'al' 이 뒤따르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는 전치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한 전치사가 이 동사 형태 뒤에 사용되는 이 한 경우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악인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찾지 못한다. 이 경우나 *hithpael* 형태의 다른 어떤 경우도 성적인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져 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NIV는 단어의 다른 용법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번역에 도달했습니다. 그 대상이 처녀이기 때문에 시선을 정욕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어 단어는 *베틀라*

입니다 . 그러나 이 해석은 욥의 눈에 금지가 *베틀라* 에 국한된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 성 윤리가 정말 문제라면 이 언약이 여성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베틀라* (Betulah) :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처녀 및/또는 여자 [3:41-5:20]**

다시 말하지만 , “처녀”는 일반적인 번역이지만 실제로는 *betulah* 라는 단어로 전달되는 여성의 성적 상태나 상태가 아닙니다 . 아버지의 보호 아래 남아 있는 여자를 가리킨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그녀가 성적인 경험이나 성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녀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분명히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베틀라* 인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

따라서 용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가 반드시 영어 분류 시스템에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을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에 따라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것이 그들의 분류 체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보지 않을 *베틀라* 입니다. 소녀가 아버지의 보호 아래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사회는 편안하게 일부다처제였습니다. 따라서 욥이 결혼할 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 [5:20-5:46]

따라서 이 동사를 더 잘 이해하려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욥은 그의 눈에 대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정도는 분명합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어로 “무엇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문 조사 *mah* 로 시작 하지만 이 조사에 대한 욥의 용법은 책 전체에서 일관됩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이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렌더링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시편 37:10의 공헌 [5:46-7:51]

일반적으로 욥기에서 이 입자는 수사학적 질문을 도입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구절인 시편 37편 10절은 이 동사와 전치사를 사용하며, 이 구절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악인의 위치를 살살이 살피도록 지시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 지시는 악인의 상태를 부지런히 조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 관찰을 욥의 진술에 적용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내 눈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베툴라를 찾는 데 무슨 관심이 있겠 습니까? 즉, 그녀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거나 문의하는 것입니다. *베툴라* 에게 문의하는 것은 매춘부에게 문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문이 진정 정욕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사 *하마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틀라*는 일반적으로 처녀를 나타내지만 처녀성은 단어의 핵심 의미를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정황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틀라*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결혼할 수 있는 소녀입니다.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betulah*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러한 조사는 잠재적으로 정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4:2에서 삼손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자동으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중매 결혼은 *베 툴라*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렘과 지위는 정욕이 아닌 요점입니다 [7:51-9:25]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욕의 눈에 대한 언약은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금욕적인 헌신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 대안은 진술이 하렘 획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아내, *베 툴라*에 대해 물을 때 *하는 일입니다*. 큰 하렘은 고대 세계에서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욕은 여러 아내와 첩을 모으는 생각을 외면하고, 이 결정을 자신의 눈에 대한 언약으로 특징지어 자신이 배회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서원은 31장 24절과 25절에서 재물 추구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그의 진술을 반영합니다. 욥은 청빈서원도 순결서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치욕적인 명예 추구를 피합니다.

이 해석은 저자가 선택한 각 단어를 고려하므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무리 중요한 성윤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욥이 권력을 강화하거나 남용하여 자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혹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많은 선언과 일치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의 중요성[9:25-9:57]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읽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을 면밀히 읽고 논의의 논리적
흐름에 비추어 무엇을 발견하는지 보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9회기,
욥기 31:1, 그의 눈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9:57]

욥기

모임 20: 엘리후 담화, 욥기 32-37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0과, 엘리후 담화, 욥기 32-37장입니다.

엘리후 담화 소개(욥기 32-37장) [00:24-2:02]

이제 우리는 새로 온 엘리후에 도착합니다. 그는 책의 해석자들에 의해 침입자로 여겨져 왔으며, 책의 흐름에 대략적으로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침입자로 볼 수 있지만 그의 역할은 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책의 논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조차 흥미롭다. 다른 친구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분명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모퉁이에 성을 쌓고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정말로 신정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후는 책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간 연사보다 더 옳지 만 여전히 옳지 않습니다. 그는 책이 우리가 결국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현명한 현인 같은 또래들을 존경해 온 어떤 의미의 젊은이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역할: 욥의 독선 폭로 [2:02-2:43]

그래서 32-37장에서 엘리후의 담론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책에서 욥의 의로운 외관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난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일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곳에서 욥은 물론 이전 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했습니다. 엘리후는 특정한 비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욥의 독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후와 욥의 결백 맹세 [2:43-3:53]

그건 그렇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욥의 무죄 맹세 이후 서스펜스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욥은 무죄를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결투를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신과의 대결은 매우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서술자가 또 다른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긴장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훼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엘리후의 장황한 연설을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종류의 전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광고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실제로 파괴적이라고 느꼈지만 이것은 모두 책 편집자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러분이 약간의 고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도전자와 평행을 이루는 엘리후 [3:53-4:47]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도전자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의 의로움을 보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Challenger는 욥의 의로움을 단순히 번영의 혜택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욥의 의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독선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도전자는 욥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고 엘리후는 실제로 욥의 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책에서 그렇게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보복 원칙을 예방적 수단으로 재정비함 [4:47-6:11]

엘리후가 악의 혐의로부터 하나님을 변호하는 동안에도 34장에서 그것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36:3과 37:23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34장 11절과 36장 11절과 12장과 같은 보복 원칙의 대략적인 패러다임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복 원칙은 사실입니다. 이제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엘리후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가올 일을 예상하기 위해 예방하는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보복 원칙을 재정의합니다. 그는 35:3에 있는 욥의 동기에 대해 도전자와 동의하며 그의 주요 요점은 그가 욥을 독선의 죄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욥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독선으로 고발하다 [6:11-8:04]

그의 주장은 자신을 변호하는 욥의 독선이 그에 대한 징벌적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엘리후 변종은 공격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배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그를 미끼로 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인간의 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위대한 공생뿐만 아니라 의에 중점을 둡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욥의 독선적인 태도를 정죄하는 데 명백히 옳습니다. 우리는 욥의 말과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욥의 태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그의 생각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것들을 꺼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동기에 대해 틀렸습니다. 엘리후는 공생의 위대한 태도를 경멸하고 욥이 여전히 이익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번영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엘리후의 변호 [8:04-8:41]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며 그의 성품의 다른 모든 측면과 함께 그의 공의는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에 대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의 통치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우리의 평가나 시정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가 옳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고상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엘리후의 결함 있는 신정론 [8:41-10:09]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도 틀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적절한 신정론을 가지고 있으며 신정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정론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옳을 고발한 동일한 잘못에 희생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엘리후는 공의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가져오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삼각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삼각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의가 시스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신정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관성이 정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간단한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이고 그의 친구들이 보복 원칙을 재정의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간단한 정의 방정식이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는 틀렸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해 야훼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옳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0과, 엘리후의 설교, 옳기 32-37장입니다. [10:09]

욥기

21회기: 하나님의 말씀 1과 욥의 응답(욥 28-40.5)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하나님의 말씀 1과 욥의 응답, 욥기 38-40:5입니다.

야훼 연설 소개 (욥기 38-40:5) [00:28-1:52]

이제 우리는 마침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야훼의 연설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세 번째 담화 섹션입니다. 서스펜스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욥의 무죄 맹세를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임재와 동반되지만, 진행되고 있는 일에 특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에 시정책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욥의 무죄 맹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손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정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 롭습니다.

비정렬 세계의 복잡성 [1:52-3:18]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신에 그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시작할 때 당신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복잡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질서정연한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 정연한 세계의 극한 영역에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의 복잡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옴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옴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정의와 보복 원칙에 따라 질서를 정한다는 전제하에 작업해 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훼가 그의 연설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곳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서, 비질서 및 무질서 [3:18-5:45]

이제 이 시점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용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는 비질서, 질서, 무질서를 사용한다. 비질서는 본질적으로 악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혼돈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이 의인화되거나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비순서는 중립적입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포장한 모든 상자를 가져와 방 여기저기에 놓고 새 집에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상자는 비순서를 나타냅니다. 예상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주문할 준비가 된 상태로 상자에 모두 포장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2절의 무순서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창조는 질서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창조하신다고 말하는데, 지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질서를 추구하고 사물을 질서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순서는 프로세스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거의 모든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순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습니다. 신이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그는 모든 비질서를 해체하지 않는다. 결국 정원 내부에는 질서가 있는 공간이 있고 정원 외부에는 질서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다는 질서 없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적의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이 주문 시스템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는 질서를 뜻하는 마아트(Ma'a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모든 종류의 문학의 초점입니다. 우주론과 법 또는 비문은 종종 왕이 어떻게 질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질서가 없는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질서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그의 계획에 참여하는 부통령인 신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비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소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악에서 파생된 질서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비질서, 무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과 비질서 및 보복 원칙[5:45-8:08]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비질서, 고통,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무질서와 악한 행동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보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에도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우주의 영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정식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은 세상의 작용을 보복 원리라는 하나의 단순한 명제로 축소하는 이론의 확신에 찬

정식화를 반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정의가 제도의 기초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작업 38 및 비순서 [8:08-10:44]

우리는 38장에서 그가 질서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광대한 땅을 이해했느냐?” 나는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안다면 내게 말하라 빛의 처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나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들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들이 거쳐하는 길을 네가 아느냐 진실로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미 태어났고,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꼬는 고리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야훼의 연설조차도 문학적 구성물이라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풍자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점을 만들기 위해 그의 입에 넣습니다.

“너는 눈 공간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예비한 우박 공간을 보았느냐 번개가 흩어지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동풍이 땅에 흩어지느냐?” 그가 이 우주적 작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읍? 그러나 특히 25절을 보십시오. 보복 원칙은 정의입니다. 시스템의 기초로서 비는 사법 시스템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홍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땅과 성장하는 식물에 다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비는 여기 정의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의 때를 대비한다는 개념을 몇 구절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항상 사법 제도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보보복원칙과 정의를 기본으로 [10:44-11:50]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욥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의 가정 중 일부에 대해 욥을 확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복 원칙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공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을 40장 첫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욥을 내세우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 어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막고 한 번 말하여도 대답이 없고 두 번 말하겠노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무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11:50-12:56]

이 책의 목표는 단지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책이 제공해야 하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키우도록 돕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옅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서론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조언을 줄 것입니다 .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놀라운 두 생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옅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하나님의 말씀 1과 옅의 응답, 옅기 38-40:5입니다. [12:56]

욥기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리고 욥의 응답(욥 40.6-41.34)

존 월튼

이것은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욥의 응답, 욥기 40:6-41:34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개 2 [00:31-1:12]

이제 우리는 마침내 야훼의 두 번째 연설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얻기 위해 인간의 무지를 넘어 움직일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온 책의 일부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손을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약간의 재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1:12-2:31]

한 번 보자. 4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언급하지 않았다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로힘이

아닙니다. 샤다이가 아닙니다.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에 야훼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야훼 연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느낌을 줍니다. 욥은 엘 샤다이에 대해 말했지만, 밝히려 오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게 보낸 이 연설에서 그의 처음 몇 줄을 읽습니다. 물론 질문을 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야훼의 침묵을 다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러 오지 않으십니다. 그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모든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말하자면 탁자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은 욥 [2:31-4:37]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내 공의를 깎아내리시겠습니까? 자신을 정당화하라고 저를 정죄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욥의 연설에서 명확하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평판을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욥은 일어난 모든

일에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욥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팔과 같은 팔을 가졌느냐 네 음성이 그의 우뢰와 같을 수 있느냐 영광과 영화로 스스로 단장하며 존귀와 위엄을 입었으니 분노의 분노를 발하라.” 마치 야훼께서 “좋아, 욥, 하루만 신이 되어 보아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냈다고 생각하니? 글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자.” 12절, “교만하여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를 보라 악인을 그 서 있는 곳에서 꺾으라” 그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까? 그는 “실제로 해낼 수 있다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생물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의, 욥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근거로 여기는 욥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수사적으로 세상에 정의를 부과하는 욥의 능력에 도전합니다.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보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에 공의를 세우라고 도전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정체 [4:37-5:44]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기 위해 베히모스와 리바이어던이라는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려진 자연 종이 아니며 현재 멸종된

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생물들의 특징을 조사해보면 정말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Leviathan에서 생물학적 또는 멸종된 종과 비교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는 불을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생물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혼돈 생물 [5:44-11:07]

나는 그들이 혼돈의 생물이라고 제안합니다. 혼돈 생물은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진 범주이며 고대 청동이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돈의 생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Leviathan은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Ugaritic 텍스트에서도 알려진 카오스 생물입니다.

카오스 크리처는 질서 정연한 세계의 변방에 거의 한 발, 한 발 밖에 없는 경계 생물입니다. 그들은 알려진 동물과 추상적 특성을 공유하는 전형적인 생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베히모스에서 하마의 유사성 또는 리바이어던에서 악어의 유사성을 보았다는 생각은 하마나 악어가 일종의 베헤모스 또는 리바이어던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데까지만 이릅니다. Behemoth가 실제로 하마이거나 Leviathan이 실제로 악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입니다.

혼돈 생물의 범주는 내가 말했듯이 코요테, 부엉이, 타조 또는 하이에나와 같이 경계 생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눈에서만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이 혼돈 생물 범주에 속합니다. 후자의 그룹인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엄격하게 동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합성 생물입니다. 그래서 사자 머리, 독수리 날개, 그리핀이나 스팅크스 같은 생물. 따라서 혼돈 생물은 종종 합성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돈의 피조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창세기 1장,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1:21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원 밖의 덜 질서 있는 영역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비질서가 계속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질서의 증거이지만 부분적으로 질서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리워야단을 놀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21에서 바다를 향해하는 거대한 피조물이 언급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돌아와서 " *b* *ara*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처음으로 바다 괴물에 붙일 목적으로 " *bara*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체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반우주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우주에 대항하는 일이지만 엄격하게 비질서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질서 있는 세계의 일부이지만 생각 없는 본성 덕분에 비질서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카오스 피조물은 도덕적으로 사악하지는 않지만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토네이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토네이도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오스 피조물은 신의 적이 아니지만 인간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다가 무질서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생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Behemoth는 실제로 "cattle"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육지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육지 동물의 추상화입니다.

Leviathan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다 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것들을 혼돈 생물체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마와 악어는 확실히 위험하며, 이들과 같은 카오스 생물의 산란 또는 하수인으로 느슨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인물로서의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의 역할 [11:07-12:06]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의 정체성이 책 속의 인물로서 그들의 문학적 역할을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대

청중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연결된 정체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은 책의 저자에 의해 캐릭터, 책에서 역할과 목적이 있는 문학적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문자를 사용하여 책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정체성의 논쟁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욥의 다른 곳에 있는 혼돈 생물[12:06-14:08]

카오스 생물은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3장에 있는 욥의 탄식은 3장 8절에서 리워야단을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혼돈의 피조물로 취급하시는지 물었습니다. 7시 12분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타님(tannim)*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돈의 피조물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부분적으로 길들여진 혼돈 생물체를 목줄에 묶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30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 하나님 자신이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혼돈의 피조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베헤못의 역할을 맡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신은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Leviathan보다 훨씬 우월하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본문에서 Behemoth와 Leviathan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혼돈의 피조물처럼 행동하신다고 비난했고, 하나님은 “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히못과 리바이어던을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문학적 역할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헤못과 욥 비교 [14:08-16:08]

그래서 우리가 40장 15절을 열 때 하나님은 욥의 주의를 베헤못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Behemoth를 봐”라고 말한 다음 다음 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베히모스를 보아라.” 욥과 베히모스는 함께 그룹화됩니다. 하나님은 둘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헤못을 다루는 짧은 부분을 살펴볼 때 24절, 즉 15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5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만족하고 배불리 먹습니다. 15가 비교를 도입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헤못은 욥처럼 만족하고 잘 먹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은 베히못을 욥처럼 강하게 하셨습니다.

40절 19절에서 베헤못은 욥과 같이 그 종류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은 15 :7 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20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보살핌을 받습니다. 40장 21-22절에서 베헤못은 욥처럼 보호를 받습니다. 23에서 이제 Behemoth 섹션의 끝인 23과 24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23에서 Behemoth는 격렬한 강에 놀라지 않습니다. 추론이나 함축이 더 중요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해야 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안전합니다. 그는 잡히거나 갇힐 수 없으며, 당신도 상처를 입지 않고 저항해야 합니다. 24절은 “누가 능히 그것의 눈을 잡으며 그것의 코를 꿰뚫을 수 있느냐” 고 말합니다. “코”라는 단어는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뚫지 못하며 ” 이것은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명명된” 또는 “지정된” 또는 “침투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헤못은 욥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로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베헤못에 대해 읽은 모든 내용을 욥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섹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욥은 베헤못과 같아야 합니다. 욥이 “당신은 나를 혼돈의 피조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연설은 “글쎄요, 이 점에서 당신은 조금 더 혼돈의 생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리워야단보다 크시다 [16:08-22:44]

리바이어던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긴 섹션,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다시 주목합니다. 처음 여덟 구절은 2인칭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2인칭 형식이다. 욥이 리바이어던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간의 생각으로, 나는 아이디어의 조금 이상을 생각합니다. 리바이어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낚시 바늘로 끌어당기고, 혀를 묶고, 코드를 코에 꽂으세요 . 자비를 구걸할까요? 당신에게 온화할까요? 당신은 그것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의 애완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리바이어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 여호와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를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의 혀를 집어넣고,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길들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의 전환은 Leviathan이 야훼와 비교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41:3, “그것이 계속 너에게 자비를 구하겠느냐?” 그것이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사납게 할 자가 없나니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내게 값을 청구가 있으리이까” 야훼 자신이 자신과 리워야단 사이의 연결을 그립니다. 그가 리바이어던과 같다고 보다는 리바이어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리워야단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왜 야훼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리워야단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통역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가 리워야단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종류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1장에서 이 정보를 살펴보면서 Leviathan은 제어할 수 없으며 Yahweh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Leviathan은 복종하거나 자비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훼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리바이어던은 상처를 입거나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은 가망이 없다.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과 11에서 완전한 비교를 읽었습니다. 당신을 포함하여 아무도 나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욥. 12에서 18까지는 고삐를 받기 위해 강제로 입을 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욥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야훼를 이용하고 굴레를 씌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야훼는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에서 25까지, 리워야단은 화를 내면 위험하며 야훼도 그러하다. 26에서 32까지, Leviathan은 야훼와 마찬가지로 무적입니다. 33절, 어떤 피조물도 그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욥이 야훼와 동등할 뿐 아니라 리워야단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리워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11-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연설의 서두와 비교해 보십시오 . 교만한 모든 자를 지배하는 것은 리바이어던입니다. 욥은 40장 11절과 12절로 돌아가서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을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41:34) .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또한 교만한 자의 왕이십니다. 그는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리워야단에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욥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가 야훼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배워야 할 것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의 메시지에서 카오스 생물의 역할[22:44-24:19]

따라서 이 책의 메시지에서 이들 피조물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우주적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한 해석자는 심지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챌린저와 동일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의 완전히 반대라고 본다. 두 생물 모두 악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어느 생물도 도전자 *하사탄을 나타내지 않으며* , 초기 장에서 도전자의 역할이나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진압하고 우주적 정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주적 정의는 저울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야훼께서 하신 일의 결과도 아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나 인간의 경험에 공의를 가져오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책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칙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주장입니다.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4:19-24:52]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욥이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욥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야훼는 어떤 말로도 욥의 의로움이나 그 자신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훼의 절정의 연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명백한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베희모스처럼 신뢰해야 한다 [24:52-25:47]

Behemoth에 관한 요점은 급증하는 물에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히모스는 의롭지 않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베히모스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리바이어던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야훼는 그들을 패배시키거나 그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삽화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이 문학적 프레젠테이션에서 Behemoth가 하는 것처럼 안전과 신뢰를 가지고 성난 강물에 대응해야 합니다.

인간은 야훼보다 열등한 리워야단을 도전하거나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야훼를 길들이거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리바이어던이나 신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욥의 반응 [25:47-27:10]

42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욥의 두 번째 대답은 그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계획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길들이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물었느니라 지식도 없이 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공의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보응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합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일과 너무 놀라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Wonderful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급여 등급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업 취소 및 제출 [27:10-30:47]

“네가 말하되 이제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물으리니 대답하리라’ 내 귀가 주를 들었더니 이제 내 눈이 주를 보았 으므로 내가 나를 멸시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주제넘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회하고 제출합니다. 이것은 그가 방금 말한 첫 번째 응답과는 다릅니다. 그는 철회하고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너무 놀라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히브리어 *펠레*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성한 영역의 정보를 가리킵니다.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 그것에 대해 조금 말해 봅시다.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Niphal 형태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단어들과 구별됩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행동을 바꾸다라는 뜻의 *shuv* 라는 단어였습니다 . 여기서 옴은 행동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진술을 철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2:14, 예레미야 4:

28, 예레미야 18:10, 요엘 2:13, 요나 3:10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언어 형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 다룰 수 없는 모든 흥미로운 구절들입니다.

그 사건의 대부분은 후회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욥의 진술에서 그는 이전 진술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특성화는 자신의 이해력에 대한 주제넘은 믿음과 오만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의 후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의 진술은 다른 문제도 열어줍니다. 여기서와 같이 전치사 'al' 과 함께 사용 하면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재고하거나 더 자주 마음에서 잊게 만들거나 모든 것을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가 그의 마음에서 꺼낸 어떤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지와 재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al . 그래서 그는 이 먼지와 재를 마음에서 치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전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먼지와 재에 대한 모든 것을 재고하고 먼지와 재를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따라서 그는 애도의 끝을 선언했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히못과 리워야단의 중요성 [30:47-31:29]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이 책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와 악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화나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생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생물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고 그것이 옘과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그리고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John Walton과 옘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하나님의 말씀 2, 베헤못과 리워야단, 옘의 응답, 옘기 40:6-41:34입니다. [3 1:29]

직업

모임 23: 후기, 욕기 42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23, 에필로그 작업 42입니다.

에필로그 소개 [00:23-2:04]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책을 끝내는 산문 부분인 에필로그에 도달했습니다. 42:7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느슨한 끝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느슨한 결말입니다. 에필로그가 책의 결론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한 끝을 묶을 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절에서 우리는 욕의 친구들에 대한 질책과 화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무리의 대변인인 것 같은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욕과 같이 나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내 집으로 가라 내 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이요 내 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갚지 아니하니라

이제 무엇보다 먼저 엘리후가 아니라 세 친구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엘리후는 이 견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책에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견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역 문제: "나에 대한" 2:04-3:18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 2:04-3:18]

그러나 우리는 여기 번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욥기에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NIV는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번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네코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느코나*는 어떤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검증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검증 가능한 진리의 개념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사와 그 뒤에 오는 전치사의
조합입니다. NIV는 그 전치사를 "abou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이 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참석한 누군가에게 말하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에필로그 진술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3:18-5:17]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번역가들이 왜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선, 그것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이전 연설에서 하나님께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욥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책 전체에서 욥이 말한 모든 것이 옳거나 사실이 아니 *있음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욥은 그가 말한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승인을 받은 것은 욥이 야훼에게 방금 말한 것뿐이고 그것은 그가 책 전체에서 말한 것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이 말한 모든 것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욥의 반응을 인정하고 친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교되고 질책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게 옳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욥처럼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석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에필로그의 수사학적 전략: 보응원칙의 복직이 아님 [5:17-8:22]

자, 에필로그의 수사적 전략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책에 대한 정당한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욱의 번영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루션 종류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그것은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에게 더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해서 자녀를 잃은 슬픔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책이 사고 실험이라고 제안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녀들에 대해 슬퍼하는 실제 욱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고 실험 프레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회복, 안타깝지만 욱의 형통 회복은 보복원칙의 재부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응원칙의 부적절함을 확립시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다시 들여오나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의 초점이 하나님의 정책임을 상기하십시오. Challenger는 의로운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은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욱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 27장에서는 욱이 번영이 아니라 의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도전자의 주장을 탐구합니다. 욱은 의를 위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는 공짜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욥의 주장을 다루며 의로운 사람들을 변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변함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정책이 아닙니다. 에필로그에서 욥의 형통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이전과 같이 계속 행하실 것이며 그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책에 대한 도전은 튕겨 나갔다. 그래서 그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복원합니다. 도전자와 욥이 제시한 사례는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 원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선물로서의 변명 [8:22-9:08]

욥은 이제 자신의 변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 보복 원칙에 따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변명은 그가 얻은 보상이나 하나님이 주셔야 할 보상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변명은 명백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욥의 형통의 회복은 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욥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원의 요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새로운 변명을 통해 하나님의 도전적인 정책이 회복됩니다. 의인의 형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질서를 이루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에필로그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미래의 만족에 대한 기대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책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물로서의 욥에게서 배우거나 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을 그의 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충분히 쉽게 제공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 우리의 반응을 모델링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책은 욥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전제 위에서 작동하도록 구속되지 않습니다.

욥의 번영과 삼각관계의 회복: 정의가 아닌 지혜 [9:08-14:39]

욥의 형통 회복은 무조건 보복원칙의 재부착과 같지 않다. 욥의 축복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책도 세상의 운영도 신정론으로 적용되는 보응 원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각형의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복 원칙, 욥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디에 요새를

세웠으며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지와 함께 이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각형의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하지 않습니다. 신은 삼각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고 버리십니다. 신은 삼각형 아이디어를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간단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틀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의가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각형을 늘리고 표면 목적으로 작업했지만 여전히 삼각형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은 삼각형에 맞지 않습니다. 삼각형은 거부됩니다. 우리는 주장의 삼각형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정의가 아니다. 기초는 지혜입니다. 보복 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과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파급 효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옴의 경험에 우리의 기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옴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며, 책은 마치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독자들의 공백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 책이 제공하는 유일한 설명은 고통이 만연하고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에필로그는 책의 완벽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에 대한 도전이 해결되었습니다. 신과 우주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어리석은 생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는 책의 결론이지만 책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에필로그, 욕기 42장입니다. [14:39]

욥기

모임 24: 욥기의 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24장 욥기입니다.

소개 [00:21-00:45]

이제 우리는 욥기의 일부 인물에 대해 일종의 요약 보기를 취하면서 몇 개의 세그먼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선은 물론 욥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욥기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오는 세그먼트 중 일부입니다.

책에서 욥의 역할 [00:45-2:00]

이제 욥을 살펴보고 책과 책의 메시지에서 그의 역할을 요약해 봅시다. 욥의 역할은 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책이 제시해야 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관점은 고통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부적절한 지혜를 예증합니다. 그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의 질과 동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신은 불공평하며, 그의 고통에 대한 처방은 신과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에서 우리의 인도를 기대하고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의로움 [2:00-3:03]

이제 그의 의는 누군가를 주변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의입니다. 그것은 욥기 31 장입니다. 욥이 무죄를 맹세할 때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의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혜택과 대조되는 것으로 책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관심을 갖는 포인트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그의 의입니다. 그는 의를 매우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왜 욥이 의로운가? [3:03-3:45]

그의 의로움이 잠재적 이득에 의해 동기 부여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를 동기 부여합니까? 욥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텍스트는 혜택이 동기 부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혜택이 동기 부여자가 아닌 경우 요점을 밝혔습니다.

욥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를 완벽하게 식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극적인 몰락을 초래했을 범죄에 대해 무죄로 선언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욥의 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욥의 경건 - 사소한? [3:45-7:45]

경건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일찍이 1장에서 4절과 5절을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식 수행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세계에서 생각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위대한 공생-애지중지하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은 신을 애지중지하기 위해 위대한 공생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의식 행위입니다. 그런 종류의 경건은 신들의 연약한 자아와 그들의 변동성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은 의로움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세계에서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부였습니다. 이 의식 공연 만 있으면되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경건은 욕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반응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의식 수행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결코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공생은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에 대한 추정된 동기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얻는 이익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문제의 일부나 해결책의 일부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이상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욕기 1장 4절과 5절에 있는 그 중요성에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욕은 자녀들이 중대하지만 부주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을 바칩니다. 그것은 욕이 의식적으로 잘못에 대해 양심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가 충분히 경건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잠재적인 취약성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펼쳐지면서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중재자, 변호인을 개입시키려고 반복해서 시도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의인과 함께 의를 찾아오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욥의 풍부한 양심적 관습은 천국 장면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챌린저의 제안은 심지어 욥의 경건 의식의 잠재적인 함의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렇게 빈약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까다로운 의식에 참여한다면, 욥이 그의 경건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움에서도 불합리하고 변덕스러운 신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

욥이 하나님을 보잘 것 없다고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경매에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전자는 욥이 대공생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챌린저의 제안은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논리적 추론입니다.

욥의 충절[7:45-8:22]

따라서 욥의 정직성은 욥이 하나님이나 그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완전하지도 옳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옳은 한 가지는 성실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27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입증될 때 성취됩니다. 그것이 그의 성실성입니다.

욥이 아내나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충절은 상실될 것입니다.

독선적인 욱[8:22-9:29]

욕은 또한 특히 엘리후의 감시 하에서 독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의롭다고 해서 독선적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것은 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독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에 대한 욱의 견해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폄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론 40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욱은 책에서 여러 측면에서 사람으로서 실패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해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더 나은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9:29-11:20]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물로서의 욱이 이 책의 초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은 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욱의 반응은 우리에게 모범이 아닙니다. 그를 칭찬할 것도 많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비난받는 것도 많다. 욱은 일이 잘못되는 책의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 책은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욱은 일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책의 인물입니다. 그의 의는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일을 옳다는 인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일이 망가지면 항상 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특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더 나은 반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욕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책이 메시지를 펼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욕을 높은 단상에 올려놓지 말고 책의 메시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세계로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책에서 세상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다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욕기 24장 욕기입니다.

[11:20]

욥기

모임 25: 욥기의 세계:

질서, 비밀서 및 무질서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 욥기의 세계 : 질서, 비밀서, 무질서입니다.

소개 [00:27-00:58]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밀서, 질서, 무질서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조금 검토한 다음 그것이 욥기와 우리 신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창조: 질서, 비밀서, 무질서 [00:58-3:48]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는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와 틀림없이 우리 세계,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모든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체계에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료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주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순서가 없는 2절에서 시작했는데, 원재료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할당받아야 하는 원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포장을 풀어야 하는 상자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방들. 이 비질서 역시 악이 아닙니다. 최종 형태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중인 작업입니다.

주문 생성의 초기 작업은 전체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바다는 질서가 없는 곳이다. 정원 밖은 정원 안과 같은 수준의 질서가 없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은 어떻게 해서든 전체 질서를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떻게든 그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지혜로 그는 확장된 프로세스를 통해 작업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파트너십으로 이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사람들은 확립된 질서와 계속되는 비질서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질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무질서는 악을 반영하며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악의 우주적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무질서는 주로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질서가 지속되고 불행하게도 무질서가 지배하는 비질서를 지속함으로써 신이 확립한 질서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세상에 대해 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입니다.

보복 원칙 [3:48-5:06]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계에 주입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복 원칙을 우주의 기초로 채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락한 세상입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성품이나 속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무질서 [5:06-7:39]

점차적으로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우주에 비질서가 남아 있고 무질서가 침입하도록 허용된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 다시, 비와 홍수가 자동적으로 그분의 정의나 축복 또는 형벌의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야훼 자신의 주장을 상기하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립니다. 자연 재해, 우리가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것,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토네이도, 가뭄, 기근, 전염병, 전염병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의 파괴적인 경험 돌연변이 는 모두 세계의 비질서의 측면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중 일부가 실제로 더 큰 생태계와 우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질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또 다른 표시일 뿐입니다 . 물론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자연 재해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그것들을 형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가 언제 형벌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볼 때마다 판단에 사용되는 도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어떤 집이 토네이도에 의해 타격을 받을지 어떤 집이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 그가 원격 제어 장치를 들고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지만 그들은 인간처럼 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리모콘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만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지혜[7:39-9:08]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주가 그의 속성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보상이나 처벌을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상황에서 중력이 작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왜 한 곳에 비가 내리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았는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질 때 왜 뼈가 부러지는지 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 왜 한 사람은 당뇨병이나 암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방식대로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나 세포 분열의 각 표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세부 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행위보다 우주 체계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의 핵심이 아닌 정의[9:08-1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고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현명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욕기에 근거하여 그가 정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우주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세력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정의보다 우주의 작용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의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주가 하는 방식대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세상은 오직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욕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욕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 욕기의 세계
: 질서, 비질서, 무질서입니다. [11:09]

욥기

모임 26: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서론: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행동? [00:22-2:06]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아시다시피, 보기 시작하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읽기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그는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목숨을 걸고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인정함으로써 까닭 없이 욥을 파멸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죄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욥의 거듭된 탄원을 무시합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니다"라는 말로 인식되는 말로 욥을 위협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힘과 신비를 지닌 두 생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뭐야? 그는 설명이나 변호 없이 그에게 번영을 돌려줍니다. 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그림과 씨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파괴적이지 않으면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까? 비참하게 끝날 것 같은 이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책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는 것 [2:06-3:14]

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검색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도 욥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인물인 것처럼 인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Behemoth와 Leviathan이 캐릭터인 것처럼. 그들은 인물이고 신은 문학에서 수사학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질문 재검토 [3:14-7:08]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겉보기에 부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챌린저의 활동에 대해 신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책은 천국의 장면에서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천상의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야훼는 문학적 특성화로 묘사된다. 그는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왕실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문학적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질문이 그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설정합니다. 문학적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와의 내기에 개입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 계정에서 이미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의해 수행된 문학적 역할은 내기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욱의 고통이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책에서 펼쳐질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욱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모두 문학적 설정으로 설정되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욱의 동기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까? 제 말은, 이 확장된 책이 욱의 동기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는 알아낼 필요가 없다. 독자들에게 해결되고 있는 질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의 의를 유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욱에 대해 확신이 없으십니다. 독자들은 욱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욱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경험과 상황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하도록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장면은 질문을 움직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연극으로서의 직업 [7:08-8:08]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글썄, 우리는 욥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의 서론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장면에 있는 모든 것은 문학적 구성물, 장치, 문학적으로 장면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나리오입니다. 캐릭터는 연극의 캐릭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업이 연극이나 드라마틱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계되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되고 그들의 행동은 내러티브의 목적에 기여합니다.

극단적인 특성화: 환원 불가능한 하나님 [8:08-12:17]

하나님은 욥이 그의 파멸을 시작할 때 그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추론할 수 없습니다. 문학적 시나리오는 그러한 모든 평가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없애 버리십니까? 단순히 요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부주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의 극단은 그의 의와 번영의 극단만큼이나 설득력 있게 묘사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극단이 중요합니다. 총체적 손실 외에는 초점이 되는 지혜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욥이 가족이 아니라 재산만 잃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건강이 아니라 재산과 가족을 잃었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이나 재산만 잃었습니다. 글썄, 적어도 그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비유를 접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생각으로, 사실주의와 극도로 과장되고 믿을 수 없는 요소가 혼합된 상황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극단은 우리가 문학적 구성을 다루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 하나님은 욥의 간청을 무자비하게 무시하십니까? 글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 책과 그 가르침은 심하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탄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무자비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해결책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설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은 설명을 하도록 옴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책의 메시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세는 그가 옴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옴을 위협하여 잠잠하게 하십니까? 글썄요, 야훼의 연설에서 그는 부인할 수 없이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가 겁에 질려 비굴하게 비굴해지도록 의도한 것일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염려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시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야훼의 자세는 신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요점은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가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옴은 예수의 비유와 평행을 이룬다[12:17-15:12].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과 품꾼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땅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은 천국에서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만 일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임금은 비유가 말하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슬기로운 관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호의를 베푸는 상사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슬기로운 오퍼레이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에서 그에게 주어진 문학적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무자비한 종은 “내 천부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 끝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종을 고문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 청탁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은 도움을 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잔소리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에서도 비유의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프로필을 실제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유의 요점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가 비유의 인물인 것처럼 저자가 그 인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캐릭터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목적 및 정책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에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15:12-16:21]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책의 잘못된 영역에서 정보를 끌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욥기의 신학을 이해하도록 이끌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다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욕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16:21]

욥기

세션 27: 욥기의 신학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신학 27 회입니다.

소개 [00:22-00:48]

이제 우리는 욥기의 신학을 추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징지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들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신학을 함께 짜맞추도록 노력합니다.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견해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은 사소하지 않다 [00:48-3:09]

그러니 신이 작다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의 상급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14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아주 아주 깊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전형적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보상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리고 신은 어떻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10년 전에 어떤 작은 경멸에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고 방식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미세한 편차에 대해 설명하라고 무자비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요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염려가 보잘 것 없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염려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3:09-8:02).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반박될 수 없다는 욥의 주장은 그의 초기 확언의 핵심이다(1:21, 2:10). 그러나 그 자리는 욥에게 있어 일시적인 위치에 불과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의 공의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법정에서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권세로 고발합니다. 누가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가 정의의 문제라면 미묘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9:19입니다. 예, 그는 흠없는 사람과 악인을 모두 멸망시킵니다. 그것은 욥기 9장 22절에서 세 구절 뒤에 나옵니다. 19:7에서 욥은 *미슈파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Mishpat* 는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27:2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쉬파트*를 금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34:5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신이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야 하는 것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공격자, 대적자, 배반자, 무자비한 전사로 고발합니다. 40장 8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욥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대인의 반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세상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가 가져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정의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좌절 속에서 그 실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려면 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결함은 우주가 신의 속성으로 찍혀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실수는 날마다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그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지만 공의가 그 결정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쉽습니다. 그가 공의의 인도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오히려 묘사한 혼돈의 피조물처럼 됩니다.

따라서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질서의 근원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비질서를 나타냅니다. 질서, 비질서, 무질서의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안한 대안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지혜를 반영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질서의 근원이자 중심이지만 비질서나 무질서도 그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작될 수 없다 [8:02-11:00]

욥은 또한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외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31장에 있는 결백의 맹세입니다. 욥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찾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의 균형을 되찾음으로써 일종의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그의 무죄 서약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 지르지 않은 모든 범죄를 열거하고 기본적으로 그가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침묵이 남아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를 죽 이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욥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정당함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암묵적으로 수동적으로 욥을 면죄했을 것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초기 파멸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복 원칙이

그의 정책을 정의한다면 욥의 명성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성은 상실될

것입니다. 욥기 1장 4-5절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신이 의례적 접근법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느님이 무감각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능한 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헌금, 교회 출석, 예배, 엄격한 기독교

규율 수행 등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혜택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11:00-11:56]

그래서 우리가 욱기에서 얻는 많은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욱의 오류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성향을 인식할 때 나옵니다. 신이시여 그들이 우리 자신의 사고 방식을 특징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 책의 신학은 하나님의 그림을 넘어 고통의 그림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욱기에 나오는 고통의 신학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욱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욱기 신학 27 회입니다. [11:56]

욥기

세션 28: 고통의 신학과 욥기

존 월튼

이것은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8회, 고난과 욥기입니다.

소개 [00:22-1:03]

이제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고난의 신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책은 실제로 고통에 대한 답을 알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고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음을 기억하십시오. .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욥기에서 고통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 중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수준과 유형 [1:03-2:19]

물론 우리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많은 다른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이거나 쇠약해지는 통증이나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수치심, 불안, 학대 또는 깨진 관계와 같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적

고통, 섭식 장애, HIV 또는 신경계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나 말기 환자를 돌보면서 고통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압적인 정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기아, 질병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매우 다양한 수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릴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서진 세상의 특징입니다.

고통받는 질문 제기 [2:19-4:32]

그래서 고통에 관한 모든 신학은 우리가 고통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신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그는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용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 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며 공의와 연민으로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이 만연한 세상을 창조는 고사하고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적합한 신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을 허용하는 그러한 신은 우리가 경배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이 어떤 외부 기준에 순응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설명을 구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이나 세상이 왜 그런가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고통의 신학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보편적인 것이든 고난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욕기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관점과 관련하여 접근해 봅시다.

고통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

1) 고통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4:32-5:07]

첫째, 고통은 모든 인류의 몫입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고통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통은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고통받을 한 사람과 저기서 고통받을 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덜 명백합니다.

2) 고통은 진행 중인 창조 의 우연성이다[5:07-7:54].

둘째, 고통은 진행 중인 창조 의 우연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질서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며, 새 창조 때까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질서가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우발 사태 중 하나입니다. 비질서와 무질서 모두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고통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잠재적인 해를 경고하는 신경계를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고장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감정을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신이 신경계와 감정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에 취약합니다. 사랑은 종종 이생에서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몸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상은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진행 중인 창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예상한다면 그것을 경험할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기 쉽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위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3)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지 않은 고통 [7:54-11:26]

셋째, 고통은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고통은 무질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비질서적 불완전 창조의 결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어떤 고통은 틀림없이 죄의 직접적인 자연적 결과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목소리만이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언적인 목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7에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과 상황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성서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교훈입니다. 충분해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탐색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관리하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삶이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승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 방향에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허용” 및 “허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들 중 일부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언어이고 신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은 “세상의 고통과 악은 신의 나약함, 감독 또는 냉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도록 허용된 피조물의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비용은 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4) 믿음을 깊게 하는 기회로서의 고난[11:26-14:18]

넷째, 고통의 신학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인생에서 경험한 고통의 양과 상관없이 그 고통은 좋은 나쁜든 우리가 누구인지에 기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로마서 5:3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물을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요동치는 물을 피하도록 돕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볼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시련이나 위기의 시간 내내 하나님께 신실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삶이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사라져도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있으며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14:18-15:01]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가져올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로부터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10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견디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 [15:01-15:49]

이들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제거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와 인간의 곤경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증거할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약간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8회, 고난과
욕기입니다. [15:49]

욥기

모임 29: 욥기의 메시지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9,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음 [00:21-2:35]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욥기의 메시지를 요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공합니까? 귀하의 질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질문이 "왜?" 라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욥의 행동에는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우리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조언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유를 묻는 전자의 시도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는 후자도 느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을 추구할 때에도 항상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향은 글썄요, 제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고통을 겪은 이유를 찾기 위해

이성 부스에 줄을 선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 일부는 비밀서와 무질서가 포함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은 이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됨 [2:35-2:55]

반대로 우리는 고통의 목적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찾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목적 자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왜 욕기에서 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도 그 대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 자신을 변호하게 만든 것은 욕의 실수입니다. 아니오, 아니오, 우리는 신이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우리의 급여 등급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심 없는 의[2:55-4:49]

우리의 질문이 다음과 같다면 어떨까요? 사심 없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Challenger가 제기한 질문이며 책의 많은 부분에서 주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책이 제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은?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으며, 기꺼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혜택, 영생, 용서, 구원,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4:49-5:27].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 이 책은 우리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통찰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단순히 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기꺼이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5:27-6:22]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세상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환상을 스스로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수사적으로 제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시도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쎄요, 신은 아주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하지만 우리는 신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정확히 욥의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6:22-8:05].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신뢰만이 가능한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덧없고 부적절합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신뢰하기가 더 어려우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성이 실패한 곳에 신뢰가 온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확증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서 분명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혜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가 절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혜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우주를 위한 그의 계획과 목적의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그와 동역하는 참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약속과 행동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혜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8:05-10:37]

욥기의 메시지: 거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당신이 얻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은 매우 유사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제단에 묶인 것은 그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고 언약의 모든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죽고, 땅도 없고, 가족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언약은 그때까지 그 제단 위에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는 항상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언약을 통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22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얻을 것이 없으며 그 흑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단어의 대안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있고, 이익을 위해 있고, 무언가를 얻을 때만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언약은 그가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제단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심 없는 의로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기의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며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욕기의 적용.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9회 욕기 메시지입니다. [10:37]

욥기

30회: 욥기의 적용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30회 욥기 적용입니다.

소개: 적용, 행동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 포인트 [00:23-1:53]

그럼 마지막으로 욥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욥기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청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행동 포인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의 행동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적용에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포인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대신 사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이 이번 주를 위한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스며들어 실제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만큼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A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의

행동 포인트에 대한 약간의 전략을 세우는 대신 어떤 일이 닥칠지 대비할 것입니다.

고난에 대비함 [1:53-4:20]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삶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그날 마라톤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콘서트장에 들어와서 복잡한 곡을 악보로 읽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준비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연한 사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정말로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운전을 시작할 준비를 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타이어 교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도움 없이 어둡고 버려진 도로를 따라 어딘가에서 타이어가 펑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그래서 우리는 진입로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날을 선택하고 타이어 교체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십시오. 가끔 저는 욕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을 때 읽기에 좋은 책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책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 참을성 있게, 거의 지루하게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러한 사고 포인트를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이해의 저장소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4:20-5:01]

자, 그것에 대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책이 위로를 주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 의도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나 가족이나 야훼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답변으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원이 있더라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책은 위로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생각을 해서 안 되는 방식입니다.

욥이 수용을 가르치고 생각할 점을 격려하다 [5:01-7:46]

위로의 대안은 책이 우리가 수용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은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수정된 관점을 얻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팔 길이로 잡을 수있는 것으로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욕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제의 한계 , 하나님의 통제의 조건,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명에서 위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과 신뢰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련의 행진 명령, 개선 적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패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융 위기에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청구서의 혼란을 따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배우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포인트는 내가 건설적인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길 , 좋은 사고 습관과 일상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평생의 내적 자원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금융 위기에서 미결제 청구서를 지불하는 대신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미래를 위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입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은 피카유네가 아니다 [7:46-8:59]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신은 피카유네가 아니다. 물론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최근에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치병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대한 이타적인 봉사에 바쳤고, 하나님이 피카유네라는 약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시다 [8:59-9:18]

신에 대한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몇 번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를 나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카오스 피조물이 아니다 [9:18-9:53]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의적이기보다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하다기보다는 선하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남용하기보다는 우아함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은 강력하고, 짓궂고, 제멋대로이고, 비도덕적이며, 본능과 이기심에 이끌리는 혼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은 혼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용으로 우리 자신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9:53-10:13]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용으로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욕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리의 삶과 생각에 흡수해야 합니다.

신을 조종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10:13-10:51]

신을 조종하는 것은 항상 나쁜 생각입니다. 항상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림은 결국 하나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짓과 부름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또는 옴이 그랬던 것처럼 무죄를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구석에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10:51-12:44).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우리가 지정한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이런 종류의 응답을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치유, 인도,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로부터의 치유보다는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도록 하기보다 우리가 보기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하도록 그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 제 뜻이 아닙니다.

사심 없는 의[12:44-14:55]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분을 섬기고 영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빛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이 사심 없는 의로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 옴은 그런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와 충성은 사심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모두 잃어버리고 미래의 축복,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성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혜택이 없다면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상품이 있는 라이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수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국 사업의 파트너인 하나님과의 관계, 소명과 관계에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일하는 하나님 왕국의 동반자를 제공합니다. 그 관계는 천국까지 보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 묶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15 고난의 상황에서 소망을 위한 답 [14:55-16:55]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고 너희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나는 우리가 종종 그 구절을 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유와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아니며 문맥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보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지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삶이 영망진창일 때 어떻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 [16:55-17:41]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분께 통제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우리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명이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 신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혜택에 근거하지 않는 의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세합니다. 신뢰만이 가능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판잣집: 하나님은 선하시다 [17:41-20:25]

이것은 The Shack이라는 제목의 William Paul Young의 논란이 많은 소설에서 매우 통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이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의 모습이 고통받는 캐릭터에게 말하는 것처럼 책의 끝에서 두 개의 짧은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욕기에서 배운 것에 비추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현실에 대한 아주 작고 불완전한 그림을 바탕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상처, 고통, 자기 중심, 권력의 작은 매듭을 통해 행진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 모든 생각에는 강력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죽음을 궁극적인 악으로

보고, 신은 궁극적인 배반자이거나 기껏해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조건을 지시하고 내 행동을 판단하고 나를 찾습니다. 유죄. 당신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결함은 당신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모든 의미, 끝, 개인 삶의 모든 과정이 내 선함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신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겸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다음과 같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줄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ROM. 11:33-35: **그의 지혜의 깊이**[20:25-23:05]

강력한 통찰력.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35절의 잘 알려진 구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송영이지만 욕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확장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 그것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의 깊이를 어떻게 표제로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줄을 보십시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판단, 그것이 그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논리적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 위대한 단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는 누가 그의 조연자였습니까?” 잠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조언하고, 더 나은 방법을 말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였느냐”는 요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빛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찬송으로 끝맺습니다. -- 신뢰하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욕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욕기 적용 30회입니다. [23:05]